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몽골 문학 태동기 작가인 데. 나착도르지
단편소설 연구

-이인직의 신소설과 비교를 통하여-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삭 다르수렝헤렐렝바야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호영

몽골 문학 태동기 작가인 데. 나착도르지
단편소설 연구

-이인직의 신소설과 비교를 통하여-

Study on the Progressive Composition of Author D.Natsagdorj
from the Mongolian Transitional Literature Period: Through
the comparison of In-jik from Sinsoseol(New fiction)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샤 다르수 령 헤 령 령 바 야 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호영

몽골 문학 태동기 작가인 데. 나착도르지
단편소설 연구

Study on the Progressive Composition of Author D.Natsagdorj
from the Mongolian Transitional Literature Period: Through
the comparison of In-jik from Sinsoseol(New fictio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샤 다르수 령 헤 렐 령 바 야 르

샤다르수렝헤렝바야르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몽골 문학 태동기 작가인 데. 나착도르지 단편소설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샤다르수렝헤렐렝바
야르

본 논문은 몽골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데. 나착도르지의 삶과 그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한국 신소설 작가인 이인직의 작품과의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몽골과 한국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지나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진행되었지만 문학 교류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몽골 근대 문학 태동기를 대표할 수 있는 데. 나착도르지와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몽한 비교문학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2장에서 데. 나착도르지의 삶과 그의 작품의 창작 배경을 설명했다. 15세 때 인민혁명을 경험한 데. 나착도르지는 1921년부터 인민군사부의 정식 서기관이 되며 그의 경력을 시작했다. 데. 나착도르지는 신식 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하여 자진하여 1925년부터 1929년까지 소련과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 일한 경력과 해외에서의 경험은 그가 이전의 봉건적 질서를 거부하고 근대적 지식과 문화를 소개한다는 계몽을 향한 문학적 목표의 밑거름이 되었다.

데. 나착도르지의 작품들은 당시 몽골의 시대적 상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에서는 몽골의 제 1호 항공기를 수입한 사건을 바탕으로 쓰였으며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는 어치르바트부 반혁명 운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스님의 눈물」에서는 타락한 불교에 대한 비판

이 나타나고, 「하얀 달과 검은 눈물」에서는 당대 봉건 사회의 억압과 평범한 사람들 간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3장에서는 데. 나착도르지의 작품인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 「하얀 달과 검은 눈물」, 「보이지 않았던 것」, 「스님의 눈물」, 을 분석하여 각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주제 의식과 표현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데. 나착도르지의 작품 창작의 주된 주제는 계몽 사상의 강조였으며 표현 방식의 특징으로는 비교 혹은 동시적 서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데. 나착도르지와 한국 근대 문학으로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문학인 ‘신소설’의 대표적 작가인 이인직의 삶과 문학을 비교하였다. 그 둘의 삶은 비록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국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으로 개화기라는 매우 유사한 시기에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문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들어가서 데. 나착도르지의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 「보이지 않았던 것」과 이인직의 작품인 「혈의 누」, 「은세계」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두 작가의 작품에서 계몽 사상과 구 체제 비판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골 문학 태동기의 대표적 작가인 데. 나착도르지의 전기적 삶과 그의 문학의 창작 배경, 구체적인 문학 작품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이인직 문학과 비교하는 작업은 앞으로 몽한 비교문학 연구의 발전과 아시아 개화기 문학의 보편성 연구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주요어】 데. 나착도르지, 이인직, 비교 문학, 개화기, 정치성, 계몽성, 신소설, 몽골 단편소설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방법론	5
II. 데. 나착도르지에 대한 작가론적 고찰	7
2.1 나착도르지의 삶	7
2.2 나착도르지 창작 작품의 사회적 배경	13
III. 나착도르지의 소설 속의 인물 연구	20
3.1 계몽 사상과 신지식 수용	20
3.2 여성의 자유와 구 체제에 대한 비판	27
3.3 동시 서술 방식을 통한 정치적 목적 반영	38
3.4 승려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본질 고찰	48
IV. 데. 나착도르지와 이인직 문학 비교	61
4.1 데. 나착도르지와 이인직의 개화기 문사로서 역할의 유사성	61
4.2 데. 나착도르지와 이인직 문학에서 나타나는 계몽 사상	63
V. 결 론	70
참고문헌	74

부 록	76
-----------	----

ABSTRACT	93
----------------	----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911년 12월 29일 몽골은 몽골을 지배하던 청나라의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200여 년 만에 독립을 이루었다. 독립은 당대 승려들과 귀족 계급(왕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몽골의 독립을 선언하고 정교일치를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제를 창설했다. 그리고 외몽골의 불교 수장이었던 ‘젍춘담바 쿠투투 8세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¹⁾’를 황제로 추대하여 ‘보그드 칸(Богд хаан)²⁾ 정권’을 세웠다.

이것은 몽골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독립 운동해 온 투쟁의 결과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몽골 독립은 청나라의 붕괴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만큼 보그드 칸 정권의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이 중국에서 벗어나 나라의 독립 인정받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이었다.

하지만 당대 러시아는 외몽골만의 자치를 허용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몽골은 자치 행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보그드 칸 정권이 추구하는 바는 내외몽골의 통일을 통한 하나의 나라로서의 완전한 독립이었지만 몽골은 러시아와 북경 정부 사이 국제정세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하자면 중국은 내몽골을, 그리고 러시아는 외몽골을 각각 지배하려고 의도했던 것이었다. 몽골은 이웃 두 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영향으로 인해 몽골은 보그드 칸 정권을 무너뜨리는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1911년 독립이 소수의 승려와 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면 1921년 사회주의 혁명 운동은 평범한 몽골 인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11년 혁명 운동

1) ‘성자(聖者)’라는 뜻; ‘자브잔담바 호탁트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 할하 몽골어형 발음)’, ‘젍춘담바 쿠투투(Jebthundamdamba Khutuktu)’, ‘집춘담바 쿠투투(Jibzundamba Khutugtu)’는 모두 사용 가능한 표기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기가 나타나는 것은 티베트문 표기를 읽는 전통의 차이 때문이다.

2) ‘성스러운’, ‘최고’라는 뜻

은 러시아 군주제의 붕괴, 10월 혁명을 통하여 수립된 소련의 도움으로 인해 이루어진 인민 혁명이었다.³⁾ 당대 인민 혁명의 주요 결과, 외몽골과 내몽골은 소련과 중국에게서 각각 독자적으로 독립 인정을 받았다.

그 중 외몽골은 소련의 도움으로 문화 부흥이 일어났다. 문화가 뒤떨어져 있었던 당시 외몽골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된 것은 계몽이었다. 그렇다면 문화의 부흥을 따라 문예 발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앞서 몽골 근대문학의 기반이 된 전근대와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 문학에 대한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문예 부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몽골은 구비전승문학⁴⁾이 강했었다. 전근대 이후 과도기 문학의 단계로 들어가자 당대 작가들은 낯선 근대 문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몽골 전통 문학 양식을 통해 조금씩 근대적 문학으로 나아가고자 했다.⁵⁾

예를 들면 근대 작가인 담딩수렝(1908-1986)의 경우 이전 몽골 설화에서 나타나는 영웅적 인물이 부자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민중에게 나눠주는 모티프를 사회주의 문학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버림받은 달」 같은 자신의 문학 작품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창작 경향은 ‘민담형 단편서사’⁶⁾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몽골근대문학

3) 현재 몽골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수흐바타르’는 인민혁명을 승리로 이끈 장군으로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

4) 몽골 구비문학에서의 종류별호; ‘토울(туул; 서사시, 대표적으로는 장가르(Жангар), 게세르(Гэсэр), 토오즈(Тоуж; 서사시 가운데 기록화 되어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울게르(Үлгэр; 이야기, 민담, 설화),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국의 영향으로 ‘벤승울게르(Бэнсэн үлгэр; 내몽골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전통적인 운문 형식에서 벗어나 산문성이 강화된 즉, 운문과 산문의 교차형), 이선아, 「몽골 영웅서사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4.

5) “민족의 구전문학을 잘 알고, 옛 문예를 많이 읽은 사람에게 민담형 단편서사는 두 가지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첫째는 아직 근대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교양이나 교훈적인 내용 전달을 문학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실주의 문예 경험에 얽은 젊은 작가들에게 민담을 기본틀로 삼아 단편소설 창작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데. 나르만다흐, 「1920-30년대 몽골 한국 단편소설 비교연구」, 2003.

6) ‘민담형 단편서사’는 아직 고정된 형태의 번역어가 아니다. 아직 국내에는 몽골현대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희박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시’에 대한 내용들이다. 어쩌다 소설에 대한 소개가 있다고 해도 대표작 한두 작품에 대한 또는 몇 편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간략한 소개 정도이기 때문에 ‘민담형 단편서사’에 대한 소개는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필자가 번역한 것으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정된 용어는 아니다. 원 용어로는 ‘울게르-우굴렉(Үлгэр өгүүлэг)’이다. ‘울게르(Үлгэр)’는 ‘이야기, 민담, 설화’ 등으로 번역될 수 있고, ‘우굴렉’은 현재 ‘단편소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굴렉’은 1950년대 이후 정착된 용어이기 때문에(게.아요르잔, 일.울지터거스 “몽골단편소설선집”, 영원한글자. 2007, pp.6-11) ‘단편소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단편서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울게르’를 ‘이야기, 민담, 설화’ 중 어느 것으로 번역해야

사에 있어 근대로 가는 준비 단계가 되어주었다.⁷⁾ 이 단계에서 일부 작가들은 근대적인 소설의 구성을 기존의 전통 서사들로부터 시도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사실주의 작가들은 소설 창작에 있어 기존의 전통서사와는 구분하려고 했다. 그 작가들 중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데. 나착도르지’이다. 그는 급격히 변해 가는 몽골의 사회의 상황을 인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품 속에 당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담는 것에 노력했다. 그렇다고 그가 전통을 경시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데. 나착도르지는 과거의 문학과 근대 문학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구분해 주는 것을 중시했다.

데. 나착도르지의 이런 사실주의적 경향과 소설 내에서 근대 문물의 도입, 자유연애, 전근대로 상징되는 불교에 대한 비판 정신은 그가 몽골 문학에 근대성을 적극 도입한 작가로의 의미를 부여한다. 비록 완전한 근대성을 이룩하지 못한 전근대적 문학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말이다.

본 논문은 몽골의 근대문학의 주요한 대표, 혹은 몽골근대문학의 뿌리에 해당하는 작가들 중의 하나인 데, 나착도르지(Natsagdorj.D)의 삶과, 그의 작품들 특히 소설들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선택하고, 소설 속의 인물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들의 성격과 서로 간의 갈등, 그리고 작가가 그들 인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묘사하는지를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데. 나착도르지 소설의 특징 및 몽골 내의 위상을 밝히고, 한국 과도기 문학에 해당하는 신소설의 대표적 작가인 이인직의 작품을 통해 몽골과 한국의 근대로의 과도기 문학을 비교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몽골과 한국은 서로 수교를 맺은 지 벌써 20년가량 되었고 그 동안 경제, 과학, 문화와 예술 등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관련한 양국 문학 교류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작점에서 사실 지금까지 한국과 몽골의 문학적 교류는 거의 전무하

할까 고민했을 때 영웅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기 보다는 총명한 아이 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부유하고 어리석거나 악한 인물들을 이기도록 만드는 구조가 민담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민담’을 선택했다. 고자연, 「몽골 근대 초기 계몽적 글쓰기 연구」, 인하대학교, 2010, 22쪽

7) 몽골의 문예연구자 ‘잠스랑자브’는 ‘민담형 단편서사’에 대해 ‘근대단편소설의 미성숙 단계’라고 정의했으며 몽골문학사에서는 사실주의 단편소설로 가는 준비 단계가 되어주었다고 평가한다. 고자연, 위 논문, 25쪽

다시피 하다 할 것이다. 그중에서 몇 안 되는 예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몽골에 소개된 한국 작품으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딸기 밭」, 「종소리」, 「감자 먹는 사람들」 등 다수 작품들이 번역 소개되었다. 한국에 소개된 몽골의 현대 문학은 『샤르허브의 아지랑이』⁸⁾와 『몽골 현대시선집』⁹⁾이 있다. 이렇듯 왜소하게나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양국 간의 문학적 소개나 연구는 고전이나 민담, 설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문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문학 교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몽골의 근대 문학 태동기에 가장 중요한 작가라 평가 받는 데. 나착도르지의 삶과 그의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베. 서드넴은 데.나착도르지에 대하여 근대 문학 발전에 있어 많은 역할을 했던 중요한 작가이며 민중의 삶을 다룬 리얼리스트라고 평가했다.¹⁰⁾ 그가 엄밀한 리얼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문제겠지만, 우선 민중의 삶을 다루려고 했다는 점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노력은 근대 문학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데. 나착도르지는 몽골의 근대 문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이다.

결국 데. 나착도르지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몽골 근대문학 중 과도기 문학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데.나착도르지의 작품들을 몽골어에서 한국어로 옮기고 그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의미와 그들의 역할 그리고 작가가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에 더 나아가 한국 문학과와의 실제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물리적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1930년대 한국 문학과 작가를 살펴봐야겠지만 이는 몽골과 한국의 개화기의 시기적 차이점으로 인해 문제점이 생긴다. 왜냐하면 1930년대 한국은 이미 개화기를 벗어나 일제 강점기로, 문학에 있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적 성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대의 상황적 유사성을 통해 본다면 몽골의 1930년은 한국의 1900대나 그 이전과 비교하는 것이 더

8) 더르즈집드 앵흐벌트외 지음, 난딩제제그와 정용환 외 역, 2006

9) 이안나, 『몽골 현대시선집』, 문학과지성, 2003.

10) 베. 서드넴, 『데. 나착도르지 전기』 국립 출판사, 1966, 3쪽

적절할 것으로 본다. 몽골의 근대화가 청나라로부터 독립과 소련의 개입을 통한 인민혁명이 1921년 발생했다면 한국의 본격적 근대화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30년의 격차는 양국의 과도기 문학의 비교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 근대 문학으로의 과도기적 문학의 대표적 장르는 신소설이다. 이 인물은 이런 신소설을 시작함과 동시에 완성을 이루고 있는 작가로 데. 나착도르지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이유로 본고는 두 작가와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한몽 현대 문학 비교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론

본고는 몽골의 작가인 데. 나착도르지와 그의 작품의 소개를 중심삼아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 데. 나착도르지의 삶에서는 작가가 소설을 쓰게 된 전기적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데. 나착도르지의 삶에 대한 정보는 베. 서드넵의 『나착도르지 전기』를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내용 중에서 데. 나착도르지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살피어 보려고 한다. 결국 그가 받은 교육이나 그가 당에게 받았던 문학적 요구들과 유학을 통한 영향들을 중심으로 살피어 보고자 한다. 그의 전기적 내용들을 살피어 봄으로써 문학 분석에 있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데. 나착도르지 작품 창작의 사회적 배경을 살피도록 하겠다.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준 당시 몽골의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사건들이 데. 나착도르지 작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그의 사실주의적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서는 인물과 상황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살피어 보도록 하겠다. 이는 데. 나착도르지의 서술 방식의 특징에 근거한 것이다. 데. 나착도르지는 작품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 매우 자주 쓰인다. 이런 비교를 통하여 작가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비교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비교를 통해 작

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주제 의식이 무엇인가 살피고자 한다.

전체적인 작품 분석 방법론은 콘텍스트 비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콘텍스트 비평은 사회학적 비평가나 마스주의 비평가들을 통해 작가가 속한 사회와 개인(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계급의 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작가(출판사, 도서관, 독자 등에 의존하는 문학 집단의 구성원)로서 그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의 관계를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된 방법론이다.¹¹⁾ 데. 나착도르지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몽골의 상황과 작가의 창작 동기가 되는 그의 사회적 위치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데. 나착도르지의 삶과 창작 배경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런 작업은 몽골 문학의 소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작품 분석의 콘텍스트적인 이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데. 나착도르지의 「하얀 달과 검은 눈물」, 「보이지 않았던 것」, 「스님의 눈물」,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를 분석함으로써 작가의 창작 특징과 소설 속 인물들의 성격, 그들의 차이점과 유사성, 그리고 작가가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는지, 그들의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인 이인직과 데. 나착도르지를 비교하려고 한다. 두 작가의 개화기라는 시기에 따른 역할과 작품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분석, 비교하겠다.

11) 제러미 호손, 손영도 역, 『소설연구의 첫걸음』, 동인, 2001, 275쪽

II. 데. 나찰도르지에 대한 작가론적 고찰

2.1 나찰도르지의 삶

데. 나찰도르지는 몽골 근대문학의 뿌리를 둔 작가들 중 하나이며 그는 1906년에 투세트 향 아이막 다르항 칭 왕 호쇼(현재 투브 아이막¹²⁾ 바양텔게르 슴¹³⁾)에서 가난한 귀족¹⁴⁾인 다시도르지(Дашдорж)家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파그마(Пагма)’는 부관 ‘처머이(Цоомой)’의 딸 세명 중 막내 딸이었다. ‘파그마’는 평범한 유목민 가족에서 태어났으며 22살 때 다시도르지와 결혼했다. 하지만 데. 나찰도르지가 7살이 될 무렵 파그마는 죽었다. 그 뒤로 다시도르지는 어머니가 없는 자기 아들 나찰도르지를 키우게 되었다. 다시도르지는 복드왕 시대부터 공산당 시대까지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다. 귀족 출신의 집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로 인한 빚이 많았다는 것은 당시 몽골 사회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¹⁵⁾

다시도르지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나찰도르지가 9살이 되자 알탕게렐(Алтангэрэл)이라는 친구에게 제자로 보냈다. 그 당시 몽골에서는 가정 교사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흔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몽골의 가정 교육 체제는 갈수록 발전해 자치 정부에서 첫 학교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데. 나찰도르지가 알탕게렐 선생의 제자로 들어간 일은 그에게 많은 도움이

12)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13) ‘군’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14) 가난한 귀족이기는 하나 그의 집안은 ‘칭기스칸’의 직계혈통이었다.

15) ‘데. 나찰도르지의 집은 어떤 환경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의 아버지 체렐터르찌 다시도르지는 ‘1919년 회의장의 사무소에 제출한 문서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제출한 문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자본과 가축을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전에 있었던 빚을 갚기 위해 몇 번에 걸쳐 지불하였다. 하지만 빚을 모두 갚지 못해 남겨진 빚을 나는 작은 아들과 함께 상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버는 돈으로 갚고 있다...’라고 써어 있으며 지역 사무소에는 ‘갚을 자본이 없다는 것은 거짓 없는 사실’이지만 ‘조세 같은 것 때문에 가난해져 빚을 얻었다는 것은 허쇼 백성들 모두의 똑같은 상황’(시. 나찰도르지, 데. 나찰도르지 연보와 관련 된 몇 개의 정보. UHHEN. 울란바타르. 1966. 17쪽)이므로 빚을 갚게 했다고 한다. 고자연, 위 논문, 38쪽, 재인용

되었고 그는 몽골 글자를 금방 배웠다. 문자를 익힌 나작도르지는 아버지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필사가(筆寫家)인 다스도르지는 근무 시간 이후 집에 가서 나작도르지에게 문서를 베끼는 것을 시키곤 했다.

다시도르지는 나작도르지의 실력을 더욱 기르기 위해 『국어사전(Элдэв тайлбар толь бичиг)』, 『개¹⁶⁾ 고양이 쥐 셋의 옛이야기(Хав муур хулгана гурвын үлгэр)』, 『흰색 두 말의 이야기(Хоёр загалын тууж)』, 『지능의 열쇠(Оюун түлхүүр)』, 『세 나라의 역사(Гурван улсын түүх)』 등 언어, 문학, 역사에 해당 된 도서들을 읽게 하고는 했다. 이를 통하여 데. 나작도르지는 어릴 적부터 문학과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데. 나작도르지는 많은 책들이나 작품들을 직접 베끼기도 했는데, 그의 스승이었던 알탕게렐에 의하면 데. 나작도르지는 단순히 베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단어나 문장을 수정해가며 간접적인 작문을 했다고 한다.¹⁷⁾ 알탕게렐의 언급한 바를 살펴보면 데. 나작도르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적 가능성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데. 나작도르지는 11 살이 될 때까지 언어, 문학, 역사, 수학 등을 가정 교육을 받고 1917년부터 아버지 다시도르지의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5 살이 되어 인민혁명이 일어난 1921년 7월부터 인민군사부의 정식 서기관이 되었다. 군사부 서기관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혁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공로상까지 받게 되었다.¹⁸⁾

그 이후로 데. 나작도르지는 당시 인민혁명의 지도자 데. 수흐바타르(Д.Сүхбаатар)의 비서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는 1922년 4월부터 당 중앙 위원회에서 보조 서기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1922년 8월부터는 당 중앙 위원회의 서기장 보조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해 10월부터는 군 교육부 교육 과장을 겸임했다. 1923년 3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당 중앙 위원회 평원을, 같은 해 6월에는 당 중앙 위원회 제 11총회에서 당 중앙 위원회 비서로 당선되었다. 동년 7월 몽골 인민당 제2회의에서 당 중앙 위원회의 회원이자 특별 회원 및 당 중앙 위원

16) 주둥이가 짧고 몸통이 작은 개

17) 베. 서드넴, 「데. 나작도르지의 연보 작품」, УННЕН, 울란바타르, 1966, 38쪽

18) 「데. 나작도르지에 대한 기록」, 울란바타르, 1966년, 18 쪽

회의 비서로 다시 당선되었다. 1924-1925년에는 군부 총군 회의 비서로 근무했으며, 1924년 8월에 있었던 몽골인민당 제3회의에서 당 중앙 위원회 의원으로 뽑혔고 그 후로는 중앙위원회 특별회원보조와 정부 비서를 겸임하였다. 데. 나착도르지는 1924년 11월 제 1 전국대회에서는 ‘청년 조합’의 대표로 축사를 했다. 1923 9월부터 1924년 4월까지의 국내 보안국에서 근무를 했고, 1925년 1월부터는 군 교육부장 등 주요 업무를 다수 담당했다.

1936년 데. 나착도르지 스스로의 기록을 보면 ‘보그드 칸 11년(1921) 군사부 비서, 스흐바타르 비서, 12년(1922) 당 중앙 위원회 비서, 14-15년(1924-1925) 군사부 비서, 스카우트 사무소장 등으로 일했으며’라고 쓰여 있다. 몽골 서류보관소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그가 유학 이전까지 당과 국가의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했는지 증명해주고 있다.

데. 나착도르지가 데. 수흐바타르¹⁹⁾, 헤 .초이발상(Х.Чойбалсан)²⁰⁾, 베. 체렌더르쨌(Цэрэндорж)²¹⁾, 스. 막사르자브(С.Магсаржав)²²⁾ 등 1921년대 인민혁명과 몽골의 독립 운동에 역사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들과 같이 일하며 인민들과 관련된 많은 일에 참여한 것은 그의 정치적 사상과 혁명적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글을 쓰고 고칠 때 데. 나착도르지는 직접적으로 도와주고는 했다. 그 예로 데. 나착도르지가 몽골의 제 1 헌법 원문과 소련과 몽골 두 나라 간에 수립된 계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국립 서류 보관소에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다.²³⁾

데. 나착도르지의 노력과 그의 업적을 나라에서 평가해 그를 1925년에 결성된 피오네르²⁴⁾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했다. 즉, 그는 당과 국가에서 맡겨진 업무를 정성껏 해내었고, 또 노동계급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사무소 업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데. 나착도르지는 근무를 하고 근무가 끝난 후 몽골 청년조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는 했다. 그는 이 조합의 회원들과 함께

19) 1921년 인민혁명의 지도자.

20) 1895-1952, 그는 1930년부터 1952년까지 몽골의 지도자이었다.

21) 1868-1928, 그는 1924년부터 1928년까지 몽골의 여섯째 국무총리이었다.

22) 1878-1927, 그는 1921년 2월 15일날 부터 1921년 3월까지 몽골의 국무총리이었으며 1921년 인민혁명의 유명한 장군들 중 하나이었다.

23) 고자연, 위 논문, 2010, 39 쪽

24) 옛날 사회주의 국가에 있던 소년단 (Pioneer; 옛 소련의 소년 소녀 단원)

1923년부터 인도의 고전선집으로부터 주제를 삼아 『오산다르(Ушандар)』이라는 연극으로 시작해 「상드와 직위²⁵⁾의 잔인한 일(Сандваа амбаны харгис явдлаас)」 등을 발표했다. 몽골 청년조합은 발표된 희곡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풍자적이거나 희극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유학에 뜻이 있었던 데, 나작도르지는 자발적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1925년부터 1926까지 소련의 레닌그라드 시의 군사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1926부터 1929년까지는 독일의 라이프치히(Leipzig) 시에서 언론인 학교를 졸업했다. 이 시기에 그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는 라이프치히의 언론인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세계의 고전 작가들과 학자들의 작품을 원어로 읽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²⁶⁾ 여기서 배운 서구의 근대 문화와 문학, 과학, 역사는 몽골에 돌아와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창작에도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먼 곳으로 배우기 위해 가는 사람(Алс газар сурахаар явагч)」과 「울란바타르에서 베를린까지(Улаанбаатараас Берлин хүртэл)」라는 기록으로 남았다. 데, 나작도르지는 1929년 봄에 귀국하는데, 유학을 통하여 얻은 근대적 지식을 기반으로 그는 몽골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29-1930년에는 울란바타르 시의 ‘제철공장(Төмрийн завод)’에서 통역으로 일하고, 1930년 봄부터 1931년 1월까지 《젊은이들의 진실(Залуучуудын үнэн)》이라는 신문사의 문예부원으로 근무했다. 1931년 1월부터는 과학 아카데미에서 학생이면서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1934년부터는 아카데미의 역사 및 음악학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37년 3월 말부터는 중앙극장의 전문 작가가 되었다.

그의 이러한 모든 이력에 대해 상술한 기록에서는 “19년(1929) 봄부터 20(1930) 봄까지 제철공장에서 통역, 그 후 청년 중앙위원회 신문사에서 근무, 20(1930)년 겨울부터 아카데미의 학생으로 들어갔다.”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대표자들이 1927년(1937) 3월 25일 제15 회의에서 「국립 중앙 극장장이 본 극장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중앙 극장에

25) 만주에서 몽골에 보낸 사람

26) 『몽골현대문학약사』, 몽골과학아카데미 편, 1968

특별 작가 두 명을 새로이 근무하게 하고, 계속 일하게 하여 극장의 연극 대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이스. 보잉네메흐(С.Буяннэмэx)와 대(大)나찰도르지²⁷⁾를 임명한다.”라는 것이었다.

데. 나찰도르지가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했던 시기는 귀국 후 아카데미 회원이 된 1931년부터 세상을 떠난 1937년까지 약 7년이었다. 이 시기 동안 그가 남긴 작품들은 시 100여 편, 단편소설, 운문, 기사 31편, 희곡 7편 및 미완성작인 「폐지 않은 진주(Хэлхээгүй сувд)」라는 휴머니즘 선전을 위한 중편소설이 있다. 동시에 그는 문학·역사학·번역론에 대한 많은 업적도 남겼다.

‘독자들의 흥미를 끌면서 인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문학과 언론의 본질을 정의하고 데. 나찰도르지는 《인민군(Ардын цэрэг)》, 《젊은이들의 진실(Залуучуудын үнэн)》, 《신세대(Залгамжлагч)》, 《혁명문학(Хувьсгалын уран зохиол)》, 《과학(Шинжлэх ухаан)》 등의 신문이 발행될 때 이를 도왔고, 또 독일에서 《학생잡지(Сурагчдын сэтгүүл)》가 나올 때에도 많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다양한 이론을 새롭게 만들 때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몽골의 아카데미의 초기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서 데. 나찰도르지는 몽골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을 만드는 일, 사료를 찾아내는 일, 그리고 몽골에 있는 문화유산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일했다. 또한 그는 『몽골어 사전(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ль бичиг)』을 만들 때 참여하였고, 『몽골사록(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товч)』을 집필하였으며, 과학을 쉽게 설명하는 소설을 써 과학에 대한 지식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몽골사록』을 통하여 ‘먼 옛날부터 몽골국이 건립될 때까지의 긴 역사’를 다루었으며, 현재를 몽골 인민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책을 ‘역사시’로 끝나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몽골 역사책과 역사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시작과 끝에 시가 있는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²⁸⁾

27) 당시 데. 나찰도르지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 나찰도르지’와 ‘소 나찰도르지’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데 나찰도르지는 전자에 해당되었다.

28) 『몽골 현대 문학사 제1권(1920-1940)』, 국립출판사, 울란바타르, 1985, 89쪽

데. 나착도르지는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의 일부분, 마르크폴로 『동방견문록』²⁹⁾, 러시아 학자 포코틸로프의 『명나라 시대의 동몽골』,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연구자 ‘게롬-게르지마일’의 『서쪽 몽골과 오리양해 국경』³⁰⁾, 몽골에 있던 러시아 대사 ‘코로스토베치’가 독일어로 쓴 『칭기스칸에서 소련 공화국까지』의 일부 등을 모두 번역하였다. 그는 또한 몽골의 역사 연구자들을 위하여 「몽골 역사 요약」이라는 에세이를 써서 『새 거울(Шинэ толь)』 잡지에 실었다. 국민들의 역사를 깊이 연구했던 일은 작가의 학식을 펼치고 몽골의 지나간 역사, 오늘날의 투쟁, 미래의 발전을 예술작품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데. 나착도르지의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30년대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당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데. 나착도르지 또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932, 1936년’ 두 번에 걸쳐 거의 1년 동안 당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장기간 감금도 당했다. 이 일로 인함이었는지 점차 건강이 나빠지다가 1937년 7월 13일 그는 사망했다.³¹⁾ 그의 죽음에 대해 당시 몽골은 ‘...몽골 혁명의 새로운 문학에 자신의 재능과 작품을 통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발자국을 남겼다’³²⁾라고 평가했다.

29) 마르크폴로 『동방견문록』을 엘버트 지마니가 독일어로 ‘대왕궁어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줄여서 출판했던 책을 몽골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30) 아카데미의 유청에 의한 작업이었으며, 베. 린첵(Б.Ренчин), 임. 야담수렝(М.Ядамсүрэн), 구르세뜨(Гүрсэд)와 협력하여 번역했다.

31)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소련에 의해 암살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과그마 돌람’과 헤어진 후 러시아 여인 ‘이나’와 재혼을 하는데 몽골정부에 의한 것인지 소련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련으로 강제 추방되었다고 한다. 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32) 『새 거울』 27, 1937.4.10

2.2 데. 나찰도르지 창작 작품의 사회적 배경

위에서 데. 나찰도르지의 창작들을 연구하기 앞서 그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 보아야하는 것은 그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것과 작가의 작품을 통한 의도를 밝히는 데에서 도움이 될 거라 보았다. 데. 나찰도르지는 당시 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작품 내용 안에 담아 그의 작품 속에서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줬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그 역사적 사건들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동시에 인민들의 교육과 신지식의 발전을 중요시 여긴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를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작품들을 통해 살펴어 보도록 하겠다.

“1932년대 ‘아르항가이’ 아이막(Архангай аймаг)³³⁾, ‘타리아트(Тариатын хүрээ)’사원(寺院)에서 이루어진 반혁명적인 운동을 바탕으로 쓰여 진 「보이지 않았던 것」³⁴⁾”, “1925년 5월에 소련에서 몽골의 첫 비행기가 수입된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 진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³⁵⁾, 1921년대 인민혁명이 이루어지기 이전 불교의 혼란 상태를 바탕으로 쓰여 진 「스님의 눈물」³⁶⁾, 당대 봉건 사회의 억압과 평범한 사람들 간의 모순을 바탕으로 쓰여 진 「하얀 달과 검은 눈물」 등 각각의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은 데. 나찰도르지의 작품 내용과 그 속에서의 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몽골 과도기 문학에 대한 이해와 본 연구에서 인용된 작품들의 분석, 또 이의 인물을 연구하는 데에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 그러자,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지자 ‘롭상’은 하늘에

33) 몽골의 가장 큰 행정 단위 중 하나

34) 베. 서드넴, 『데. 나찰도르지의 전기』 (Д.Нацагдоржийн намтар зохиол), 1966, 195 쪽

35) 베. 서드넴, 『데. 나찰도르지의 전기』 (Д.Нацагдоржийн намтар зохиол), 1966, 181 쪽

36) 1921년 이전 상황을 살펴보자면 불교사원이 700개, 지방에는 200개, 당대 남성들의 40%는 승려가 되어 있었고, 그럼에다가 승려가 된 남성들은 결혼 금지 상태이었다. 이것은 바로 나라의 인구의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반면에 시집 안 간 여성들이 더 많아지고 방탕한 상황이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당대 사회에서 성병이 퍼졌다. 베. 서드넴, 『데. 나찰도르지의 전기』 (Д.Нацагдоржийн намтар зохиол), 1966, 192 쪽

새처럼 생긴 큰 것이 위로 지나 날라 가는 것을 보았다. 룽상은 이 때까지 살았는데 그러한 큰 새를 본 적이 없었고, ‘항 가리드’³⁷⁾라는 새가 있다고 들었지만 이 대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어찌할 줄을 모른 채 한 동안 망설이었다. 게다가 그 새 같은 것을 궁금해 다시 찾아 보았지만 그 새가 순식간에 산 뒤로 사라졌다. 그 순간 룽상은 잠시 꿈인지 현실인지를 망설이며 ‘화신일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궁금했다...

... Гэтэл шуугих чимээ нь улмаар ихдэж, хоосон огторгуйд хүрчигнэн хорчигноход Лувсангийн сэтгэл нь сэр хийж, нүдээ сортойн, чихээ сэрвийн, элдэв юм бодогдон, «Хаврын эхэн сард тэнгэр дуугардаггүй юмсан. Галав юүлнэ гэгч нь арай болоогүй юмсан» хэмээн санаж зүрх догдлон, дөрвөн зүг, найман зовхист ажиглавал, үүл ч үгүй, хүн амьтан ч үгүй шороо ч үгүй, тоос ч үгүй аливаа байдал нам гүм, хамаг юм хэв хэвээр байтал, сонсох тутам өнөөх дуу нь улам ойртон, дээгүүр нь хүрчигнэхэд дээш харвал, харин нэг том шувуу мэт юм нисэн явна. Тэрэгч Лувсан тавин хэдэн нас хүртлээ тийм том шувуу үзсэнгүй, хэдийгээр хан гарьд гэдэг нэг том шувуу байдаг юм гэж сонссон боловч, бас энэ тивд байдаггүй гэж ярьдаг тул, адилтгашгүй, дэмий л гайхан дахин сайнаар ажиглая гэтэл, энэхүү нэг эгшинд тэртээ уулын цаана далд оржээ. Энэхэн зуур Лувсан нэг үе жигтэй болоод зүүдэлсэн ба үзсэн хоёрын алин билээ гэж эргэцүүлэн, зүгээр юмуу, хувилгаан юм уу гэж мухар сүсгийн үүднээс гайхсаар ...

... 금방 울란바타르 시에 도착했다. 그저께 본 것을 노부인과 아이들에게 말하려고 하자 이에 앞서 아이들이 마중 와서는 ‘우리 시에 “날아다니는 차”라는 이상한 차가 왔다’라고 하고 ‘후르후르’하는 소리를 흉내 낸다. 노인들도 또한 ‘대단해, 이상해’라며 하느님께 빌고 있었다...

... Удалгүй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д ирэв. Уржигдрын үзсэнээ авгай хүүхдэд ярья гэтэл харин урдаас нь угтаж аваад «Манай хүрээнд

37) 금시조

нисдэг тэрэг гэгч нэг сонин тэрэг ирсэн биш үү» гэж хүүхдүүд нь хүр хүр гэж дуурайн бархиралдаж, хөгшид нь « Сүрхий юм, хачин юм» гэж залбиралдан байхад...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 이 소설의 두 장면에서 보면 주인공 록상은 비행기를 보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큰 새로 여기는 반면 도시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은 날아다니는 차라고 한다. 몽골에서의 비행기의 등장은 이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1924년 11월 8일부터 소집된 국회의 첫 번째 회의 결정으로 몽골에 항공선이 있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서 인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가족마다 기부를 걷게 되었다. 그 이후 1925년 5월에 국회의 결정이 실현했으며 소련에서 몽골의 첫 비행기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이러한 수입 배경은 작품에서 구체적인 날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작품에서 나타나는 계절이 봄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수입 날짜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봄의 강렬한 해빛에 겨울의 눈더미가 녹아 땅 속으로 흡수되면서 어린 풀이 자랄 수 있게 자양물이 되고 좋지만, 이는 운반을 하고 사는 록상한테 여름겨울 동안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산 그의 신발을 척시고 더럽히는 것은 얼마나 아까울까...

... Хаврын хурц наранд өвлийн хунгарласан цас хайлж газрын хөрсийг чийгтүүлэн, өсөх төлжих ногоонд шимийг эх нь сайшаалтай боловч, тэрэгч Лувсангийн зуны халуунд хөлсөө урсгаж, өвлийн хүйтэнд хуруугаа хөлдөөж олсон муу гутлыг шавхайдан дүүргэх нь хайрлалтай ...

위에 인용된 텍스트와 언급한 바를 살펴보면 작가는 역사적 중요한 사건을 토대로 창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데. 나차도르지의 사회적 위치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는 혁명 정부의 중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비행기 수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나라의 중요

38) 베. 서드넴, 『데. 나차도르지의 전기』 (Д.Нацагдоржийн намтар зохиол), 1966, 181쪽

사건을 인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차’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모든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다. 시골의 야생 상태에 빠져 시골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지식과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지만,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으므로 내년부터 일을 시키려고 했던 열두 살 된 아들만을 인민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энэхүү нисдэг тэрэг нь хүний арга ухаан эрдэм соёлын үүднээс бүтсэн болох бүхий л учрыг олж сонсоод, ихэд гайхаж, хөдөөгийн байдалд мунхран сууж, хөдөөх заншлаар нэг насыг барахгүй, хөл хүрэх газар явж, ухаан хүрэх юмыг үзвэл эрдэм соёл гэгч их сайхан юм байна гэж мэдэвч, энэ бие хөгширсөн тул ирэх жилээс ажилд орох гэж байсан арван хоёр настай хүүтээ ардын сургуульд хөөн явуулжээ ...

위에서 보면 작가가 ‘날아다니는 차’라는 비행기를 통해 인간의 지혜와 교육을 주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시골의 뒤떨어진 상태와 비교함으로써 지식과 교육의 장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준다.

작품은 당시 몽골의 과도기적 시대상황, 특히 교육을 통하여 변해야 한다는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작품에서의 인물들의 행동과 주인공의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과도기적 시대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는 과도기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써 가져야 하는 태도를 룽상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 룽상은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놀라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소설에서 나타나는 도시 아이들이 날아다니는 차라고 말하거나 노인들이 그저 하늘에 빌었던 것과는 달리 룽상은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관료인 사람에게 물어봐 비행기의 정체를 알게 된다. 이는 과도기에 놓인 몽골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

는 것이다.

도시 아이들과 하늘에 비는 노인들은 개화 이전의 몽골의 인민들을 대표한다. 이에 비하여 룽상은 개화 이전과 개화 이후의 신식 문물을 알게 된 사람의 사이에 위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개화되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교육과 신지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다.

당시 몽골에서는 혁명이 이루어져 나라의 발전을 인민들의 교육으로부터 해야한다는 혁명정부의 방침이 있었다. 하지만 라마승들이나 옛 관리들이 몽골의 인민들을 억압하는 중심세력이었기 때문에 혁명정부가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 데. 나착도르지는 이런 혁명정부의 의도에 맞는 창작을 했다. 이런 시대적 필요성으로 인해 데. 나착도르지는 라마승이나 옛 관리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한편 데. 나착도르지는 창작함에 있어 당대 사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려내는 사실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상반된 작가의 위치는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작품에서는 당시 반란 승려들의 반혁명적인 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았던 것」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1932년대 승려들의 반혁명적인 운동에 해당한다.

1932년 몽골의 서쪽 네 아이막³⁹⁾에서 이루어진 반란은 혁명정부에 의해 강요된 혁명당 가입과 소련의 문화를 인민들에게 주입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사람들과 재산을 몰수 당한 옛 왕족, 부유한 승려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대 반란에 약 3만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⁴⁰⁾ 1931년 9 월, 흐브스글 아이막에 있는 바양걸(Баянгол) 사원의 아그림바 라마(Аgrimба лам)⁴¹⁾ 체렝자브(Цэрэнжав), 므룽(Мөрөн) 사원의 지휘 승려인 анги 다므딩(анги Дамдин), 찰항즈(Жалханз) 사원의 승려 삼당(Самдан) 등의 승려들이 처음으로 반혁명

39) 몽골의 가장 큰 행정 단위. 현재 흐브스글(Хөвсгөл), 아르항가이(Архангай), 으브르항가이(Өвөрхангай), 자브항(Завхан), 바양헝거르(Баянхонгор), 오브스(Увс) 아이막.

40) Bawden C.R, 『The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1968, 301-318 쪽, 'Б аруун дөрвөн аймагт гарсан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1932년에 몽골의 서쪽 네 아이막에서 이루어진 반란)', 제 1 장, mn.wikipedia.org. 재인용

41) 승려의 지위

의 당파를 만들었다. 그들은 아스가트(Асгат) 사원의 구렘츠(Гүрэмч)⁴²⁾ 승려 두브칭삼보(Дүвчинсамбуу)에게 반혁명 운동의 준비 일을 맡겼다.⁴³⁾ 이후로 1931년 11월에 소집한 회의에서 잘항즈(Жалханз) 사원의 화신 공가짜브(Гунгаажав)에게 반혁명 운동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원에게 연락해 필요한 무기를 찾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로 므룽(Мөрөн), 아스가트(Асгат), 부그수이(Бүгсүй), 보가트(Бугат), 보흐(Бух), 할가나트(Хялганат) 등 사원에 계급이 높은 승려들에게 각각의 지방에서 반혁명의 운동을 시작하는 일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은 1931년 1월 삼보두브칭(Самбуудүвчин)를 지도자로 임명해 1932년 여름에 약 300명의 반군을 통해 반혁명 운동을 모의했다.

그러나 일부 인민 반란 모의자들은 반군의 반혁명 운동의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이유로 모의한 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혁명 운동의 날짜는 1932년 4월 11일로 당겨졌다. 따라서 그들은 당겨진 시기에 약 100명의 반군을 통해 흐브스글(Хөвсгөл) 아이막, 라씨안트(Рашаант) 솜⁴⁴⁾의 할가나트(Хялганат) 사원으로부터 승려와 인민들이 힘을 합쳐 반혁명 운동을 시작했다.⁴⁵⁾ 반혁명 반군들은 라씨안트 지방을 침략하여 점령했다. 이후로 이곳을 반혁명 운동의 중심지로 하고 어치르바트의 부(Очирбатын яам)라고 명명했다.

데. 나작도르지의 작품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이다. 데. 나작도르지는 당시 혁명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 같은 입장에 있었던 데. 나작도르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당의 사상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소설의 사실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당시 사회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인민들은 개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옛 관리자들과 승려들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시대적 요구는 이런 인민들이 그러한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야

42) 기도해 주는 승려

43) 베. 쯤암이파르(Б.Зинамидар), 『왜곡에서 선동한 1932년대 운동』 (Гадаад аас турхирсан 1932 оны бослого), 울랑바타르, 2013

44) 행정 단위

45) 베. 쯤암이파르(Б.Зинамидар), 『왜곡에서 선동한 1932년대 운동』 (Гадаадаас турхирсан 1932 оны бослого), 울랑바타르, 2013

새 문화를 받아들이고 근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작가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당의 사상을 동시에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불교의 왜곡된 관습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스님의 눈물」 소설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작가가 불교이나 스님의 존재를 비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승려가 된 한 사람의 본질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III. 나창도르지의 소설 속의 인물 연구

3.1 계몽 사상과 신지식 수용

데. 나창도르지가 본격적으로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한 것은 유학을 마치고 난 1930년부터이다. 그 첫 해인 1930년에는 8편의 작품을 창작하고 다음 해인 1930년에는 7편을 창작했다. 그 중 잡지⁴⁶⁾에 발표되었던 작품들은 「옛 소년(1930)」,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1930)」, 「독재와 침략전쟁(1931)」, 「새벽 추위와 연기소리(1931)」, 「하얀 달과 검은 눈물(1932)」, 「보이지 않았던 것(1933)」, 「새와 같은 회색 말(1934)」 등 7편이다.

이 작품들 중에서 당시 평범한 인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뚜렷하게 그려준 작품은 ‘하얀 달과 검은 눈물’, ‘옛 소년’,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이다. 이중 분석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에서의 인물, 그들의 존재와 작가가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분석을 하기 앞서 본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13살 때부터 56살이 될 때까지 ‘싸링골’과 ‘울란바타르’시 사이에 운송업을 하고 살았던 룽상 노인은 하라 강가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오전에 보러 강으로 출발한다. 룽상 노인은 한 평생 했던 일이라 아무 생각 없이 도착지에 서들지 않는 채 천천히 가고 있었다. 하지만 넓은 초원의 조용한 그 분위기를 깨고 갑자기 어디에선가 큰 소리가 난다.

룽상 노인은 깜짝 놀라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난지를 찾으려고 하며 한 동안 망설인다. 결국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늘에는 처음

46) 위에 언급한 작품들이 발표된 잡지는 「젊은이의 진실(Залуучуудын үнэн)」, 「젊은 그와르디(러시아에서 들어온 용어, 또는 우승 병사라는 뜻)(Залуу Гварди)」, 「몽골어의 명작(Монгол хэлний яруу найруулга)」, 「민족 문화의 길(Үндэсний соёлын зам)」, 「새 거울(Шинэ толь)」 등이다. 이 잡지들은 ‘젊은’,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 이름만으로도 당시 몽골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몽골 정부가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몽골의 청소년 및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고자연, 「몽골 근대 초기 계몽적 글쓰기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0년, 52쪽. 재인용

보는 거대한 물체가 날고 있었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큰 새 같은 것을 룽상 노인이 이때까지 살았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이라 뭐라고 말할지 모른다. 마침내 울란바타르 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눌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간다.

울란바타르 시에 도착해서 오는 길에 봤던 이상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도시 사람들은 그 큰 새 같은 것을 날아다니는 차라고 하며 아이들은 마중 와서 ‘우리 시에 날아다니는 차가 왔다’라고 ‘후르후르’하는 소리를 흉내 낸다. 그 정도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한 룽상 노인은 아는 관료 한 사람을 만나 그 ‘날아다니는 차’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교육과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늙은 자신이 그런 신식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에 자기 열 두 살 된 아들을 인민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심한다.

본 작품에서는 지방에 사는 주인공 룽상 노인과 그의 열두 살이 된 그의 아들, 그리고 도시에 사는 노인들, 아이들과 근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관료의 모습이 나온다. 데. 나착도르지는 소설 속의 인물들과 그들을 통해서 당시 도시와 지방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그려준다. 특히, 작가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근대 새 문화를 각각의 방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를 소설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의도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그는 소들을 채찍질하고, ‘흐즈, 흐즈’⁴⁷⁾ 하고 소리를 치고 가다가 우연히 뒤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놀라서 뒤를 보면 끌고 가던 소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아무 뜻 없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심되고 계속 갔다.

그런데 그 소리가 갈수록 점점 더 커지며 마침내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자 ‘룽상’은 깜짝 놀라 잠시 많은 생각에 잠겼다. ‘초봄에 천둥지진 앓을 텐데, 설마 천지개벽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방팔방을 살펴보면 하늘엔 구름이 하나도 없고, 주변엔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지자 ‘룽상’은 하늘에 새처럼 생긴 큰 것이 위로 지나 날라 가는 것을 보았다. ‘룽상’은

47) 소, 낙타를 일어서게 하거나 움직이게 할 때 내는 소리

이 때까지 살았는데 그러한 큰 새를 본 적이 없었고, ‘항가리드’⁴⁸⁾라는새가있다고들었지만이대륙에서는존재하지않다고했기에어찌할줄을모른채한동안 망설이었다. 게다가 그 새 같은 것을 궁금해 다시 찾아 보았지만 그 새가 순식간에 산 뒤로 사라졌다. 그 순간 ‘롭상’은 잠시 꿈인지 현실인지를 망설이며 ‘화신일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궁금했다. 결국 ‘아무튼 올란바타르 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눌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갔다 ...

... Хэдэн үхрээ гараар нэгэнт гуядаж , амаар хэдэнтээ гуугалсаар санамсаргүй явтал, ар талд шуугих чимээ гарна. Цочин гэдрэг ажиглавал, хөтөлсөн хэдэн үхэр хэв хэвээр, дув дуугүй цувралдан явах тул, сэтгэл нь тайтгарч, цааш алхлав. Гэтэл шуугих чимээ нь улмаар ихдэж, хоосон огторгуйд хүрчигнэн хорчигноход Лувсангийн сэтгэл нь сэр хийж, нүдээ сортойн, чихээ сэрвийн, элдэв юм бодогдон, «Хаврын эхэн сард тэнгэр дуугардаггүй юмсан. Галав юүлнэ гэгч нь арай болоогүй юмсан» хэмээн санаж зүрх догдлон, дөрвөн зүг, найман зовхист ажиглавал, үүл ч үгүй, хүн амьтан ч үгүй шороо ч үгүй, тоос ч үгүй аливаа байдал нам гүм, хамаг юм хэв хэвээр байтал, сонсох тутам өнөөх дуу нь улам ойртон, дээгүүр нь хүрчигнэхэд дээш харвал, харин нэг том шувуу мэт юм нисэн явна. Тэрэгч Лувсан тавин хэдэн нас хүртлээ тийм том шувуу үзсэнгүй, хэдийгээр хан гарьд гэдэг нэг том шувуу байдаг юм гэж сонссон боловч, бас энэ тивд байдаггүй гэж ярьдаг тул, адилтгашгүй, дэмий л гайхан дахин сайнаар ажиглая гэтэл, энэхүү нэг эгшинд тэртээ уулын цаана далд оржээ. Энэхэн зуур Лувсан нэг үе жигтэй болоод зүүдэлсэн ба үзсэн хоёрын алин билээ гэж эргэцүүлэн, зүгээр юмуу, хувилгаан юм уу гэж мухар сүсгийн үүднээс гайхсаар юу ч болов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д очсоны хойно чавганц нарт ярьж, цайгий нь уух сонинтой болов гэж бодоод үхэр тэргээ гуугалан урагш явав ...

48) 인도 신앙에서 나오는 상상의 새인 가루다를 의미하며 전신이 금색으로 빛난다고 하여 금시조라고 의역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위에 인용된 텍스트에서 보면 룽상 노인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고서는 그의 첫 인상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 룽상 노인은 비행기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날아다니는 거대한 물체의 정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룽상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비행기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항 가리드’라고 부르는 상상의 새였다. 그러나 그런 예측도 정확한 것은 아니었고 확실히 뭐라고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비행기의 정체를 모른 채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망설인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비행기를 궁금해 다시 찾아보는 것과 도시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새 소식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작품의 내용이 진행되면서 작가는 룽상이 궁금 하는 거대한 새가 무엇인지 소설 진행을 통해 차츰 알게 해준다. 이 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금방 울란바타르 시에 도착했다. 그저께 본 것을 노부인과 아이들에게 말하려고 하자 이에 앞서 아이들이 마중 와서는 ‘우리 시에 “나라 다니는 차”라는 이상한 차가 왔다’라고 하고 ‘후르후르’하는 소리를 흉내낸다. 노인들도 또한 ‘대단해, 이상해’라며 하느님께 빌고 있었다. ‘룽상’은 원래 신중한 사람인지라 우선 선불리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아는 관료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차’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모든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다. 시골의 야생 상태에 빠져 시골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지식과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지만,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으므로 내년부터 일을 시키려고 했던 열두 살 된 아들만을 인민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 Удалгүй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д ирэв. Уржигдрын үзсэнээ авгай хүүхдэд ярья гэтэл харин урдаас нь угтаж аваад «Манай хүрээнд нисдэг тэрэг гэгч нэг сонин тэрэг ирсэн биш үү» гэж хүүхдүүд нь хүр хүр гэж дуурайн бархиралдаж, хөгшид нь «Сүрхий юм, хачин юм» гэж залбиралдан байхад Лувсан хэдийний догь хүн тул

дэмий чалчихаа байж даруй нэг таних залуу албаны хүнтэйгээ уулзан асууж, энэхүү нисдэг тэрэг нь хүний арга ухаан эрдэм соёлын үүднээс бүтсэн болох бүхий л учрыг олж сонсоод, ихэд гайхаж, хөдөөгийн байдалд мунхран сууж, хөдөөх заншлаар нэг насыг барахгүй, хөл хүрэх газар явж, ухаан хүрэх юмыг үзвэл эрдэм соёл гэгч их сайхан юм байна гэж мэдэвч, энэ бие хөгширсөн тул ирэх жилээс ажилд орох гэж байсан арван хоёр настай хүүгээ ардын сургуульд хөөн явуулжээ ...

위 텍스트에서는 룽상이 새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날아다니는 거대한 새에 대한 발견을 벌써 도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과 아이들은 ‘날아다니는 차’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노인들은 ‘대단해, 이상해’라고 확실히 무엇인지를 말해 주지 않는 채 하늘에 빌고 있는 보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작가가 룽상의 상황과 ‘원래 신중한 사람’이라는 그의 성격 한 모습을 말해준다. 본 작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룽상의 성격을 표현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룽상’은 어렸을 때부터 우차를 자기의 친구로 하고, 들판을 집으로 삼고 살았지만 불쌍한 그는 왜 쉬고, 배부는 시간을 갖기를 원치 않는가? 13살 때부터 56살이 될 때까지 ‘싸렁골’과 ‘울란바타르시 사이에 ‘닥브’의 가족 먹기를 운반하고, ‘발당’의 장작을 운반하고 살아 왔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있는 산과 언덕, 울통불통 길 등을 구석구석 알며, 구멍 속에서 나오는 다르브가⁴⁹⁾, 또한 지나가는 새까지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 어른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몇 십 년 동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아주 많이 쌓았다 ...

... Лувсан хэдийгээр өсөх наснаас үхэр тэргээр нөхөр хийж, эзгүй талаар гэр болгож дадсан боловч хөөрхий зайлуул, хүний үр тул амрах цадах цагийг юунд үл хүснэ. Арван гурван наснаас тавин зу

49) (명사)‘동물’ 다람쥐과의 하나, 몸은 작고 오소리와 비슷하며, 털 빛은 붉은 갈색 또는 누런 갈색이다. 페스트균을 옮기기도 하는데 털 가족은 모피로 사용한다. 건조한 초원에 때를 지어 살며 몽골, 중국 동부 지방에 분포한다. 고자연, 「몽골 근대 초기 계몽적 글쓰기 연구」, 인하대석사학위논문, 2010, 53 쪽 재인용

ргаан насыг хүртэл Шарын го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ёрын хооронд Дагвын өвсийг зөөж , Балдангийн түлээг тээсээр өдий хүрсэн тул замдахь уул, давааг ч андахгүй энхэл донхлыг ч эндэхгүй, нүхнээс гарч хошигнох тарвагыг ч барах таних бөгөөд нисэн өнгөрч одох шувууг ч төлөв мэднэ. Хуучин хүний яриаг ихэд сонсож, хэдэн арван жил нилээд юмыг өнгөрүүлсэн тул хөгшин толгой сүрхий хаширжээ ...

위에 인용된 텍스트에서 보면 작가는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룽샹의 한 평생 동안 그의 삶을 요약하여 서술해 줌으로써 소설 끝 부분에서 그의 성격을 한마디로 묶어 준다. 이 과정에서 룽샹을 소설에서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 비교해보면 그의 차이점과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결국 작가는 본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장점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골의 야생한 상태를 버리고 벗어나 교육을 통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겠다”라는 주인공의 깨달음과 자기 아들을 인민학교에 보내기로 했던 결심으로 더 뚜렷해진다. 결국, 룽샹은 소설 속에 있어 ‘대단해, 이상해’라고 비는 노인들을 넘어서 비행기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작품을 통한 작가의 또 다른 의도는 한 평생 겪어 왔던 시골의 야생한 상태정도로만 만족했던 상황에서 교육으로 인해 벗어나 근대의 발전된 미래로 바꾸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소설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하라’ 강가에서 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오전에 ‘보러’ 강으로 출발했다. ‘룽샹’은 병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심심하듯 하품하며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은 비록 힘들지만 상쾌한 바람이 앞에서 불고, 오후 햇 빛이 뒤에서 내리쬐는 것은 그에게 행복한 것처럼 여겨진다 ...

... Хараагийн голд хоноод, Бороогийн голд үлдэхээр явахад бага үдийн үе байв. Лувсан эрт боссондоо гансартал эвшээн, урт замд мац алхийлэн алхах нь хэдийгээр зүдүүртэй боловч, урьхан салхи өмнө өс нь зөөлнөөр үлээж, үдийн нар ууц руу төөнөхөд бас ч нэг жарг

ал шиг санагдана ...

(시작 부분)

... ‘롭상’은 원래 신중한 사람인지라 우선 선불리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아는 관료 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차’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모든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다. 시골의 야생 상태에 빠져 시골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지식과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지만,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으므로 내년부터 일을 시키려고 했던 열두 살 된 아들만을 인민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 Лувсан хэдийний догь хүн тул дэмий чалчихаа байж даруй нэг таних залуу албаны хүнтэйгээ уулзан асууж, энэхүү нисдэг тэрэг нь хүний арга ухаан эрдэм соёлын үүднээс бүтсэн болох бүхий л учрыг олж сонсоод, ихэд гайхаж, хөдөөгийн байдалд мунхран сууж, хөдөөх заншлаар нэг насыг барахгүй, хөл хүрэх газар явж, ухаан хүрэх юмыг үзвэл эрдэм соёл гэгч их сайхан юм байна гэж мэдэвч, энэ бие хөгширсөн тул ирэх жилээс ажилд орох гэж байсан арван хоёр настай хүүгээ ардын сургуульд хөөн явуулжээ ...

(끝 부분)

위에서 보면 롽상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시골의 야생한 상태가 교육과 기술의 장점을 알게 된 상황으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작가는 롽상 노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롽상 노인과 같은 인물을 해결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데. 나착도르지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결자란 문제적 상황을 작가가 가장 바라는 의도대로 해결하는, 작가를 대신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런 해결자를 통해 작가는 소설의 의도를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하얀 달과 검은 눈물」에서는 출탤,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는 바깥에서 나타난 남자와 군인들이 그런 역할에 해당한다. 작가는 이런 해결자를 내세움으로써 소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해결자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 소설의 끝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데. 나착도르지 작품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⁵⁰⁾

3.2 여성의 자유와 구 체제에 대한 비판

「하얀 달과 검은 눈물」은 1932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본 소설에서 작가가 강조했던 것은 당시 하층민 삶과 부유한 계층의 삶의 차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작가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대립시키고 그들의 존재를 비교해 가는 방식으로 하층민의 딸인 체르마의 삶을 그려준다.

본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목축인의 딸인 체르마는 주인인 닥당네 집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다. 그녀의 부모들이 집안 형편이 좋지 않는 이유로 체르마를 도시로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닥당의 집은 일도 많고, 그의 부인은 성격이 매섭기 때문에 체르마는 이곳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쉬어 본 적이 없었고, 몸과 마음은 고생으로 가득했다. 그런 와중에 차강사르⁵¹⁾가 다가오자 체르마가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더 많아진다. 그녀는 게르⁵²⁾를 무너뜨릴 정도로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닥당의 식구들, 손님들과 자신의 불쌍한 상황을 비교하게 된다. 체르마는 ‘집 주인들과 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고 고민해 보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난하고 압박당하는 자기 삶에 순응

50) 몽골의 근대문학 학자, 베. 서드넴에 의하면 ‘작가가 본 소설의 끝 장면에서 열 두 살 된 자기 아들을 인민학교에 보내 주기로 한 주인공의 결정과 깨달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준다. 이것을 보면 작가는 독자들에게 소설의 다음 진행에 대한 고려해 볼 기회를 남겨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베. 서드넴 『데. 나착도르지의 전기』 (Д.Нацагдоржийн намтар зохиол), 1966, 213 쪽

51) 음력설을 의미하며 몽골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이다.

52) 몽골의 전통 집

해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어느 날 닥당네 집이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된다. 닥당네 식구들은 체르마 역시 시골로 데려 가려하지만 닥당네 옆집에 사는 젊은 마부 청년인 출탤이 와서 체르마를 데리고 간다. 체르마는 출탤과 함께 지내며 가난한 중에도 자유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 어느새 1년이 지나 ‘차강사르’의 첫날을 들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다.

데. 나착도르지는 이 작품에서 인물들을 부유한 지배층과 가난한 하층민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작가가 하층민들의 삶에 대한 현실을 있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선택했던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 중 하나는 ‘차강사르’이었다. 왜냐하면 설에 해당하는 명절 때 온 민족이 모두 다 행복해야하는 데 가난한 하층민들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겨우 먹고 사는 하층민들에게는 귀족이나 부유한 지배층의 집에서 일을 해주며 음식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하층민들은 체르마처럼 고생하며 압박당하고 일생을 보낸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준 것은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정치적 사상에 있어 ‘새로운 작품은 항상 하층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만들 것, 현실에 대해 진실하게 혁명 윤리에 맞추어 쓸 것이다’라는 몽골인민당의 제 7국회에서 나타난 결정과는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⁵³⁾

그리고 이 작품은 데. 나착도르지에 창작활동에 있어 같은 시간에 두 다른 일이 동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해 주는 데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묘사 방법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서 봤을 때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닥마가 한 청년과 집 안에 노는 모습과 체르마가 출탤이랑 밖가에 장작에 톱질하는 모습을 동시 보여주는 것을 들 수 있다.

... 저녁 해가 질 때 쫘, 낮의 좋은 날씨도 변하고, 숨 같은 눈이 몽게
몽게 내리는 중 출탤과 체르마의 ‘썩썩썩’ 장작을 자르는 소리가 들리
는 동시에 따뜻한 집안에 마닥마가 젊은이와 함께 산즈⁵⁴⁾ 음악을 즐기는

53) 데. 나르만다흐, 「1920-30년대 몽골과 한국의 단편소설 비교연구」, 몽골국립대, 2004

것은 누가 봐도 슬픈 일이다. 그러나 둘은 추위에 떨리는 손가락을 가깝
한번씩 입에다 <아하>라고 입 김을 불어 녹이고는 둘만의 마음 속 이야
기를 나누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 Үдшийн наран шингэх үе болоод өдрийн сайхан агаар өөрчлөгдө
ж, сэвсгэр цас хэсэг хэсгээр хаялахын дунд Чүлтэм, Цэрмаа хоёр т
үлээ хөрөөдөх дуу хяхнан чахнах нь халуун байшингийн дотор Мя
дагмаа залуу эрийн хамт наадах шанзны аялгуу лугаа хутгалдахад
хэдийгээр уйтгартай боловч, хүйтэнд чимчигнэсэн хуруугаа хааяа н
эг амандаа хийж <Аах>гэж амьсгаадан дулаацуулж хоёр сэтгэлийн
үгсийг ярилцан, зовлонгийн гүнг нэг, хоёр наадам тохуугаар хуура
н өнгөрүүлэх нь юутай аятай билээ.

위에 인용된 텍스트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과 그에 상반되는 인물들의 행복
을 작가가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데. 나
작도르지의 창작 활동에서 봤을 때 이러한 동시 묘사 방식은 처음이며 본 작
품에서는 작가가 첫 실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시 묘사 방식은
작품의 다른 장면에서도 볼 수 있다.

... 집주인들은 새 옷을 입고 “배불리 먹자”며 먹고 즐긴다. 하지만 ‘체르
마’는 부엌일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

... Гэрийн эзэд шинэ хувцас өмсөөд, битүүлнэ гэж баяр жавхланта
йгаар хөдөлцгөөнө. Цэрмаа гал тогоотой хуримлана ...

... 그들은 계르를 무너뜨릴 정도로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고, 오직 체르마만이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

... Тэдний идэх уух, инээлдэх баясалдах нь гэр хагармаар, гагцхүү
Цэрмаа зуухны хажууд хөлрөн сууж, гөлрөн харж шүүрс алдана ...

... 아침이 되면 졸리고 온몸은 지쳐서 힘들기만 하니 고향에 자기 집에 있을 때 오늘처럼 별이 좋아 산에 쌓인 눈이 녹던 그 날, 그녀는 옆에 앉아 있던 방금 태어난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과 놀던 때가 갑자기 떠올라 자기 집과 부모님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 슬퍼지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때 닥당의 부인이 벽이 여섯 개 짜리의 크고 하얀 게르 안에서 나와 아주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체르마를 심하게 야단쳤다. “이 나쁜 것, 깔개와 양탄자 먼지를 털어 오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마당 쓰레기만 쓸면 그만이야? 내일이 정월 초하루인 걸 몰라? 이것아!”라며 빗자루로 허리를 한 번 내리치고 화를 내고 서 있으니 체르마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머리가 아파서 바람을 좀 쐬었어요. 아주머니”라며 옆에 있는 큰 양탄자를 들고 힘겹게 겨우겨우 눈 위에 먼지를 털어냈다. 이때 작년에 지은 러시아식 집의 창문으로 닥당의 딸인 마닥마가 머리에 빗질을 하면서, 화장을 한 후 새로 만든 녹색 몽골 전통복을 입는 것이 보인다. 집 안에는 흥겹게 노래하며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창문의 작은 창을 열어, 체르마를 부른다: “젊은 손님들이 오면 왼쪽 집에 들어보내”라고 명령한다 ...

... Өнөө өдөр үүргэлэн нойрмоглож, бүхий бие зүдрэн галиравч, урьд нутагт байхдаа ийм нэг сайхан нар тусаж, уул талын цас хайлсан хаврын сайхан өдөр гэрийн хаяандаа сууж, сая төрсөн хэдэн хурга, ишигтэйгээ наадан тоглож байсан нь гэнэт санагдаж, гэр орон эцэг эх, хөдөө нутаг юугаан мөрөөдөн уйтгарлаж, сэтгэл нь хөдлөн байгаа нь энэ ажгуу.

Гэтэл Дагдангийн эхнэр зургаан ханатай том гэгчийн цагаан гэрээс гарч ирээд, их л хүйтнээр хялайн харж, аягүйгээр зандран «Чи яасан хар солиг вэ? Олбог хивсний шороо, тоосыг гүвээд ир гэхэд энд юугаа хийсэн муу монди вэ? Хашааны хог арилгасан чинь энэ үү? Маргааш цагаан сарын шинийн нэгэн гэгчийг мэдэж байна уу, үгүй байна уу мал чи» гээд туужуугаар нуруун дунд нэг цохиж авад, уурлан зогсоход Цэрмаа эсэргүүцэх аргагүй тул, «Толгой өвдөөд салхинд зогссон билээ, авгай минь» гээд хажууд бүхий том хивсийг авч, дааж ядан, цасан дээр сэгсэрнэ. Энэ үед ноднин жилийн

품에서는 작가가 첫 실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시 묘사 방식은 작품의 다른 장면에서도 볼 수 있다.

... 집주인들은 새 옷을 입고 “배불리 먹자”며 먹고 즐긴다. 하지만 ‘체르마’는 부엌일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

... Гэрийн эзэд шинэ хувцас өмсөөд, битүүлнэ гэж баяр жавхлантайгаар хөдөлцгөөнө. Цэрмаа гал тогоотой хуримлана ...

... 그들은 게르를 무너뜨릴 정도로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고, 오직 체르마만이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

... Тэдний идэх уух, инээлдэх баясалдах нь гэр хагармаар, гагцхүү Цэрмаа зуухны хажууд хөлрөн сууж, гөлрөн харж шүүрс алдана ...

... 아침이 되면 졸리고 온몸은 지쳐서 힘들기만 하니 고향에 자기 집에 있을 때 오늘처럼 별이 좋아 산에 쌓인 눈이 녹던 그 날, 그녀는 옆에 앉아 있던 방금 태어난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과 놀던 때가 갑자기 떠올라 자기 집과 부모님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 슬퍼지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때 닥당의 부인이 벽이 여섯 개 짜리의 크고 하얀 게르 안에서 나와 아주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체르마를 심하게 야단쳤다. “이 나쁜 것, 깔개와 양탄자 먼지를 털어 오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마당 쓰레기만 쓸면 그만이야? 내일이 정월 초하루인 걸 몰라? 이것야!”라며 빗자루로 허리를 한 번 내리치고 화를 내고 서 있으니 체르마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머리가 아파서 바람을 좀 쐬었어요. 아주머니”라며 옆에 있는 큰 양탄자를 들고 힘겹게 겨우겨우 눈 위에 먼지를 털어냈다. 이때 작년에 지은 러시아식 집의 창문으로 닥당의 딸인 마닥마가 머리에 빗질을 하면서, 화장을 한 후 새로 만든 녹색 몽골 전통복을 입는 것이 보인다. 집 안에는 흥겹게 노래하며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창문의 작은 창을 열어, 체르마를 부른다: “젊은 손님들이 오면 왼쪽 집에 들어 보내”라고 명령한다 ...

... Өнөө өдөр үүргэлэн нойрмоглож, бүхий бие зүдрэн галиравч, ур
ьд нутагт байхдаа ийм нэг сайхан нар тусаж, уул талын цас хайлса
н хаврын сайхан өдөр гэрийн хаяандаа сууж, сая төрсөн хэдэн хур
га, ишигтэйгээ наадан тоглож байсан нь гэнэт санагдаж, гэр орон э
цэг эх, хөдөө нутаг юугаан мөрөөдөн уйтгарлаж, сэтгэл нь хөдлөн
байгаа нь энэ ажгуу.

Гэтэл Дагдангийн эхнэр зургаан ханатай том гэгчийн цагаан гэрээ
с гарч ирээд, их л хүйтнээр хялайн харж, аягүйгээр зандран« Чи я
асан хар золиг вэ? Олбог хивсний шороо, тоосыг гүвээд ир гэхэд
энд юугаа хийсэн муу монди вэ? Хашааны хог арилгасан чинь энэ
үү? Маргааш цагаан сарын шинийн нэгэн гэгчийг мэдэж байна уу,
үгүй байна уу мал чи» гээд туужуугаар нуруун дунд нэг цохиж ав
аад, уурлан зогсоход Цэрмаа эсэргүүцэх аргагүй тул, «Толгой өвдө
өд салхинд зогссон билээ, авгай минь» гээд хажууд бүхий том хив
сийг авч, дааж ядан, цасан дээр сэгсэрнэ. Энэ үед ноднин жилийн
баруулсан таван жангийн орос байшингийн цонхоор Дагдангийн ох
ин Мядагмаа гэзэг үсээ самнан, нүүртээ оо энгэсэг түрхэн басхүү
шинэ хийсэн бор ногоон торгон дээлээ тааруулан өмсөж байх нь ү
зэгдэнэ. Байшингийн дотор исгэрэн дуулж ийш тийш сэлгүүцэх бө
гөөд цонхны бяцхан салхивчийг нээж, Цэрмааг дуудан: «Залуу айлч
ин эрчүүд ирвэл зүүн тасалгаанд оруул» хэмээн бас тушаал гарган
а ...

데. 나착도르지의 창작 작품들에서 봤을 때 소설 속에서의 사건들과 인물들
을 서로 비교해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본 작품에서도 집주인들과 주인공의
모습을 비교하고 서술해 주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럴 때 작가는 그들의
모습을 풍자적인 내용으로 그려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녀가 일을 하는 닥당의 집은 일도 많고, 그의 부인은 성격이 매섭기
때문에 체르마는 이곳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쉬어 본 적이 없고, 몸과
마음은 고생으로 가득할 뿐이다. 그 동안 닥당의 부인이 켜 살의 양과
체르마가 빠진 살의 양이 똑같다.

...Дагдангийн ажлын ихийг хэлэх үү, түүний эхнэрийн чангыг хэлэх үү, ирснээс хойш хэдэн жилийн дотор ер ч амарсангүй, бие сэтгэлийн зовлонг цадтал үзжээ. Энэ завсар Дагдангийн эхнэрийн таргалсан, Цэрмаагийн турсан хоёр яг тэнцэнэ.

그리고 작가는 「하얀 달과 검은 눈물」을 통해 주인공 체르마의 내면의 모습 자세하게 그려준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부터 그녀에게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집주인들과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비교해 가는 그녀의 생각들이 나타난다. 이럴 때 체르마는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라고 자신의 불행의 이유를 찾게 된다. 이것은 본 작품에서의 체르마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마닥마의 거만한 태도를 자기의 불쌍한 상황과 비교해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가 양탄자의 먼지를 계속해서 털어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생각한다. ‘나의 주인들은 설날에 모두 좋은 텔을 입고, 동물 가족으로 모자를 만들어 쓰겠구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과 술도 배부르게 먹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누더기 텔을 입고 고생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라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유를 찾아낼 수 없어 결국 그저 ‘마닥마’가 헨 텔 중 하나는 주겠지 라고 기대한다 ...

... Цэрмаа, Мядагмаагийн торгон дээлийн өнгөнд гялбахдаа өөрийн муу уранхай даавуу дээл уруугаа нэг хараад, Мядагмаагийн танхил зуур байдлыг өөрийн энэлэлт байдалтайгаар харшуулан бодож, нүд нийхээ нулимсыг гилтэгнүүлсээр гэдрэг одож бас олбог журмын тоос шороог гүвж шүүрдэхийн хамт цагаан сарын өдөр манай гэрийн эзэд цөм сайхан торго дурдан дээл, буга минжин малгай хийж өмсөцгөөнө. Элдэв зүйлийн амтат идээ ба архи дарсыг төхөөрөн идэж ууцгаах нь ямар их жаргал вэ? Тийн атал би юунд ингэж нойр дутуу, уранхай дээлтэй, энэлэн шаналан явна гэж бодовч, нарийн учрыг олж эс мэдэн гагцхүү Мядагмаа хуучин дээлнээсээ нэгийг надад өмсүүлэх биз горьдоно ...

위 텍스트에서 봤을 때 작가가 당시 대부분의 하층민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삶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려 하지 않은 채 순응하려는 모습이 문제적이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하층민들에게 당시 봉건사회의 지배에서 벗어나 살아야한다’라는 자유의 가치를 말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소설의 끝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닥당네 집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된 그 때 체르마는 자기 사랑하는 출탐을 따라 닥당네 집을 떠나는 모습이 그 예이다. 이런 모습은 자유연애 사상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을 소설에서 살펴어 보자면 아래와 같다.

...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또 차강사르 명절이 다가올 때 무슨 이유인지 닥당의 집은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사 준비를 하였다. 닥당의 마누라가 체르마도 시골에 같이 데리고 간다는 데 어느 날 출탐이 와서: "지금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돼."라고 말했다. 체르마는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다가 곧장 집으로 와서 자신의 짐들을 챙겨 출탐의 집에 찾아갔다. 닥당의 마누라는 화를 내며 몇 번 욕을 하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출탐의 집이 아무리 때가 끼고 구멍이 났다한들, 닥당의 크고 하얀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몇 배는 행복하며 자기가 원할 때에 일어나서 할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출탐과 같이 산지 1년이 지나 ‘차강사르’의 첫날이 되어 처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체르마는 도시에 온 이후 지금까지 ‘차강사르’ 그믐날 저녁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 일은 처음이었다.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 비단이나 털가죽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찢어지지 않은 옷을 입을 것이다 ...

... Энэ мэтээр хоёр жил өнгөрсний хойно бас нэг цагаан сар шахаж байхад ямар шалтгааныг мэдэхгүй Дагдангийнх хотод суухыг болив гэж хөдөө гарахыг бэлтгэн, Дагдангийн эхнэр Цэрмаа мөн хөдөө дагуулан аваачина гэж байхын үе нэг өдөр Чүлтэм хүрч хэлж: « Одоо чи миний хамт явж аж төр» гэсэнд Цэрмаа чухам учрыг сайнаар мэдсэнгүй боловч энэ хоёр үгийг сонсоод, даруй баярлаж жаал зугаа юмаа боож, Чүлтэмийн гэрт очив. Дагдангийн

эхнэр нэг зандарч хэд хараагаад аргагүй хоцров. Чүлтэмийн гэр хэдий хар болоод цоорхой боловч, Дагдангийн зургаан ханатай цагаан гэрийн хатавчинд хэвтсэнээс түмэн хувь жаргалтай болоод, санааны дураар босож суун, хийдгээ хийж, амардаг цагтаа амран, хуучин амраг Чүлтэмийн хамт амьдран сууж байтал удалгүй цагаан сарын шинийн нэгэн болов.

Цэрмаа хотод ирснээс аваад эдүгээ хүртэл битүүний орой ийнхүү амгалангаар унтаж байсан нь ер үгүй бөлгөө. Маргааш өглөө нь эрт босож торго дурдан минж булга бус боловч өнгөтэй бүтэн хувцсаа өмсөцгөөнө ...

위 부분에서 보면 체르마가 오래도록 압박당고 살았던 그 삶을 쉽게 버리고 떠난다. 그녀가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 작가가 ‘왜 그리 쉽게 버릴 수 있는 관습을 버리지 못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하층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테. 나작도르지의 소설 창작들에서 나타나는 해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룽상 노인과 유사한 해결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출탤이다. 왜냐하면 출탤은 갑자기 나타나 소설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끝을 마무리해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설 창작에 있어 작가가 지니고 있었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작품에서는 이전의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에서 나타나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서술 방식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체르마에 대한 서술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작가는 체르마의 내면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체르마의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체르마의 내면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나타나는 것이다.

... 아침이 되면 졸리고 온몸은 지쳐서 힘들기만 하니 고향에 자기 집에 있을 때 오늘처럼 별이 좋아 산에 쌓인 눈이 녹던 그 날, 그녀는 옆에 앉아 있던 방금 태어난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과 놀던 때가 갑자기 떠올라 자기 집과 부모님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 슬퍼지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

... Өнөө өдөр үүргэлэн нойрмоглож, бүхий бие зүдрэн галиравч, урьд нутагт байхдаа ийм нэг сайхан нар тусаж, уул талын цас хайлсан хаврын сайхан өдөр гэрийн хаяандаа сууж, сая төрсөн хэдэн хурга, ишигтэйгээ наадан тоглож байсан нь гэнэт санагдаж, гэр орон эцэг эх, хөдөө нутаг юугаан мөрөөдөн уйтгарлаж, сэтгэл нь хөдлөн байгаа нь энэ ажгуу ...

위 부분에서 보면 작가가 체르마의 3년 전 기억을 현재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그녀의 슬퍼하는 마음을 그려준다. 이와 같은 경우를 다른 장면에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출탤의 집이 아무리 때가 끼고 구멍이 났다한들, 닥당의 크고 하얀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몇 배는 행복하며 자기가 원할 때에 일어나서 할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출탤과 같이 산지 1년이 지나 ‘차강사르’의 첫날이 되어 처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체르마는 도시에 온 이후 지금까지 ‘차강사르’ 그믐날 저녁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 일은 처음이었다.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 비단이나 털가죽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찢어지지 않은 옷을 입을 것이다 ...

... Чүлтэмийн гэр хэдий хар болоод цоорхой боловч, Дагдангийн зургаан ханатай цагаан гэрийн хатавчинд хэвтсэнээс түмэн хувь жаргалтай болоод, санааны дураар босож суун, хийдгээ хийж, амардаг цагтаа амран, хуучин амраг Чүлтэмийн хамт амьдран сууж байтал удалгүй цагаан сарын шинийн нэгэн болов.

Цэрмаа хотод ирснээс аваад эдүгээ хүртэл битүүний орой ийнхүү амгалангаар унтаж байсан нь ер үгүй бөлгөө. Маргааш өглөө нь эрт босож торго дурдан минж булга бус боловч өнгөтэй бүтэн хувцсаа өмсөцгөөнө ...

위 부분은 소설의 끝 장면이며 여기에서 작가는 과거의 닥당네 집에 있었

을 때와 벌써 1년이 지난 후 현재 출탤의 집을 비교해 보여준다. 이와 동시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작가가 서술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벌써 지나가거나 아니면 일 이 년이 지난 것으로 서사의 구조를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하얀 달과 검은 눈물은」 이후의 작가의 다른 소설 창작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3.3 동시 서술 방식을 통한 정치적 목적 반영

「보이지 않았던 것」은 1933년에 발표됐다. 이 작품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소설들과 달리 불교의 반란군들과 옛 관리의 모습을 소설 안에서 동시에 보여준 것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소설의 분석 부분으로 넘어가기 앞서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어 보겠다.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온 23살 청년 볼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발가르마를 만나러 가다가 낯선 세 사람에게 잡혀 간다. 그 사람들은 반혁명군에 가담한 스님과 옛 귀족들이며 그들을 잡아 간 사람들의 재산을 강도질하고 마침내 그들을 죽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상상도 못 한 무서운 일을 처음으로 본 볼드는 어찌할 줄 모른 채 자기가 죽을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그들의 잔인성을 혐오한다.

발가르마는 볼드가 잡혀 갈 때 어쩔 수 없이 볼드의 집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그녀는 볼드의 집에 가서 그의 부모들에게 낮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 후 발가르마와 볼드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볼드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발당에게서 인민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발가르마는 인민군대에서 도움을 받으러 간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 인민군인들을 찾는다. 마침내 그녀는 인민군인들과 함께 자기 사랑하는 볼드의 목숨을 구하러 간다.

인민군인들과 반혁명 군대들 간에 이루어진 전투는 인민군인들의 승리로 끝난다. 그때 발가르마는 군인들과 함께 와 기뻐하면서도 볼드의 생사를 걱정하며 시체들을 찾아 본다. 결국 그녀는 살아 있는 볼드를 발견하고 둘은 다시

만난다. 결국 둘은 함께 돌아간다.

본 작품을 이전에 살펴봤던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과 「하얀 달과 검은 눈물」과 비교해 봤을 때 작가는 소설의 내용만큼이나 소설의 서술과 묘사 방식을 더욱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하얀 달과 검은 눈물」에서 실험했던 동시 묘사 방식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확대시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에서의 인물들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준다. 이런 과정에서 작가는 소련에서 유학을 해온 지식인 볼드의 시선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반란군들의 잔인한 행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에서 당시 반란군들의 잔인한 행위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작가의 비판적 입장을 알 수 있다.

... 높은 하늘을 보면 사방이 전체 밝고,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네 종류의 가축들(양, 염소, 말, 소)은 여기 저기 방목하며 가장 자양분이 많은 풀과, 가장 맑은 물을 딸아 간다.

사계절 중의 가장 아름다운 여름 절이 오면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기분이 되살아난다. 마찬가지로 볼드도 기분이 되살아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면서 남쪽을 자꾸 본다. 왜냐하면, 볼드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올란바타르를 통해 고향에 왔으나, 얼마 후에 올란바타르로 돌아가서 취직하기 때문에, 이 날,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발가르마를 만나고 앞날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볼드는 경치를 보고 사랑하는 발가르마를 데리고 올란바타르에 간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고, 조조히 기다리는 중 남쪽에서 말을 탄 사람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세히 보면 말을 탄 사람이 확실히 발가르마였다. 볼드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고 말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 쪽에서 총쏘는 소리가 들리자 뒤돌아 보니 말을 탄 남자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볼드는 "도둑놈들인가? 아니면 사냥꾼들인가?"라고 놀라고, 아무래도 말을 타자고 생각하며 말이 있는 쪽을 향해 가는 중, 그 3명이 다가오고 "그 자리에 서! 손들어!"라고 동시에 불친절하게 소리쳤다. 볼드는 깜짝 놀랐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오? 왜 총을 쏘는 거요?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물으며

그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니, 한 사람은 얼굴에 중년을 지난 사람이며 노란 비단으로 만든 승려 복을 입었는데 여자들이 쓰는 무늬가 들어간 조끼를 입은 모습이 연극에 나오는 사람 같고, 목에는 얼룩덜룩한 상장(喪章) 하닥⁵⁵⁾을 맨 모습을 보면 떠돌아다니는 유랑자 같고, 내려다보는 모습은 굵은 늑대 같으며, 한쪽에는 붉은 칼집에 들어있는 구부러진 검을 차고, 다른 한 쪽에는 총을 맨 모습이 결코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엉성하게 짠 푸른 견직물로 만든 텔을 입은 사 사내로 윗부분이 둥글게 부푼 것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붉은 진스⁵⁶⁾가 달린 것은 분명히 옛 관리이며, 소총 한 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옷 가슴에는 티베트 글자가 쓰인 하얀 천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고 의심스럽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젊고, 머리를 하얀 수건으로 돌려 묶었다. 땅을 머리를 남겨 둔지 얼마 안된, 노리쇠 총을 메고, 큰 채찍을 들은 것은 확실히 산적의 특징을 가졌다. 이런 세 사람이었으나, 타고 있는 말들은 땀이 꽤 많이 흐른 상태였다. 볼드를 모두 노려보며, 스님 같은 한 사람은 “지금 네가 우리를 심문하는 거냐? 우리가 너를 심문할 거야. 이름이 누구야? 집은 어디고?”라며 호통을 친다. 진스를 단 한 사람은 “어디 그 모자를 벗어! 네 머리 보자. 단발머리야? 어느 조직에서 속하냐? 어서 말해!”라며 달려든다. 세 번째 한 사람은 “네가 여태까지 머리를 왜 기르지 않은 거야? 우리한테 말과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뭐해?”라고 고함을 친다.

이 때 볼드가 놀라 노려보며 “당신들이 입고 착용한 것들을 보니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것들이구려.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미친 짐승 같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웬 사람들이오?”라고 하자 그 세 사람은 즉시 총을 들고 “소겠다, 묶어라, 죽여야겠다.”라며 막 그렇게 하려고 힘을 모아 즉시 볼드를 고삐의 끈으로 단단히 묶자 불쌍한 젊은이의 얼굴은 퍼렇게 되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이를 악물고 견디며 기다린다 ...

... Тэргүүнээ дээш хандвал, дөрвөн зүг тунгалгаар цэлмээд, тэнгэр

55) 존경스러운 사람을 맞이하거나 선물, 편지를 줄 때 그리고 종교의식에서 사용하는 푸른색 등의 실크 천

56) 귀족의 모자에 달린 장식으로 이것이 달린 모자를 쓰면 ‘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자연, 「몽골 근대 초기 계몽적 글쓰기 연구」, 2010년, 67 쪽, 재인용)

ийн хязгаар асар өв тэгш болжээ. Дөрвөн зүйлийн малууд энд тэнд сүрэглээд, өвсний соргог, усны тунгалгийг даган билчинэ.

Дөрвөн улирлын гайхамшиг, найртай сайхан зуны цаг ирэхэд үнэхээр хүн төрөлхтөн, түмэн бодисын толгой сэргэнэ. Үүнд Болдын сэтгэл бас л тэнийж, цээж дүүрэн ариун агаарыг амьсгалан, газрын байдлыг, уул ус жигдэлснийг ширтэж, хээр талын цэнгэлийн гайхамшигтай сайхныг сайшаан, аяа уудам сайхан хөдөөний газар гэгч нүүдэлчин малчин монгол хүний сэтгэлийг булаана гэж харан байхын хажууд өмнө хоолой руу байн байн ажиглана.

Юун гэвэл, Болд гадаадын сургуульд явж хэдэн жил болоод нийслэл хотоор дамжин гэртээ ирсэн бөгөөд удалгүй Улаанбаатарт буцаж албан хаах учир, өөрийн хуучин нөхөр Балгармаатай энэ өдрийн хонины хишгийг тохиолдуулан хээр тавиун газар тавтай уулзаж, сэтгэл зүрхний үгсийг солилцож, шийдвэрийг хэлэлцэх болзоо тавьсан тул мөрөөдөн хүлээж байгаа нь энэ байжээ. Тэгж, Болд нэг зэрэг уул усны сайхны гайхаж, нэг зэрэг Балгармаагийн ирэхийг санаж баярлан, бас л Балгармааг аваад хот газар явна гэж бодох тутам бахдаж, тэсч ядан суутал, өмнө зүгээс нэг морьтой хүн хатирч чиглэн ирж яваа нь үзэгдэнэ. Нарийвчилбал, морин дээр суусан нь цэмцгэр бөгөөд зайлшгүй Балгармаа мөн. Болдын магнай тэнийж, олон хоньд нь нам гүм болоход түүнийг тосъё гэж яаран ташуурыг тулан босмогц ар талаас гэнэт буун дуу тасхийж дараагаар хоёр удаа дуугарахад сочин гэдрэг харвал, гурван морьтой хүн хойд толгой дээрээс бууж ирэв.

Болд “Хулгайч юмуу, дээрэмчин юмуу, эсвэл гөрөөчин юмуу?” гэж гайхан юу ч болов мордоё гэж тушаатай морь руугаа явж хүрэхийн зуур өнөөх гурван хүн шогшин ирж хөндөлдөөд: “Зогс, гараа өрөг!” гэж зэрэг зэргээр галзуу мэт хашгирна. Болд хирдхийсэн боловч айсан байдал гаргалгүй “Та нар юун хүн бэ? Юунд буу тавив. Надаар яах гэсэн юм бэ?” гэж асууж, тэднийг нэгд нэгнээр сайтар ажиглавал, нэг хөх царайтай хижээл хүн шар торгон дээлтэй байтлаа, хүүхэн хүний хоргой хамжаарыг өмссөн нь ший янгуунд гарагч

ид шиг хүзүүндээ өнгө бүрийн хив хадгийг уясан нь хэрж тэнэгч бадарчин шавираачин шиг, хүн рүү харах нь өлссөн чоно шиг бөгөөд хажуудаа нэг улаан хуйтай тахир сэлэм зүүж, бас л нэг буу мөрөвчилсэн нь хэрхэвч ерийн хүн биш. Бас нэг хөх чисчүү дээлтэй хар хүн бөмбөгөр оройтой малгай өмсөж, улаан жинс зүүсэн нь зайлшгүй хуучны түшмэд бөгөөд нэг винтов буу эгэлдэргэлж, энгэр дээрээ түвд үсэг бичсэн цагаа бүс хадсаныг үзвэл, үнэхээр сэжиглэлтэй бөгөөд гайхалтай. Нөгөө нэг хүн нас залуу, толгойг цагаан алчуураар ороожээ. Шинэхэн тав тавьсан нэг замаг буу мөрөвчилж, том ташуур барьсан нь лав шилийн хулгайч хүний шинжтэй, ийм гурван хүн бөгөөд унасан морьд нэлээд хөлөрчээ. Болдын зүг бүгдээр муухай харж лам шиг нь: “Чи маньг байцаана уу! Бид чамайг байцаана уу! Нэр чинь хэн бэ? Гэр чинь хаана вэ?” гэж зандарна. Жинстэй нь: “Аль вэ наадах малгайгаа ав, толгойг чинь харъя, халимаг үстэй юу. Юуны гишүүн бэ? хэл” гэж давшилна. Гуравдугаар нь: “Чи одоо болтол гэзэг тавихгүй яасан юм бэ. Маньд морь хүнс бэлтгэж байхгүй яасан юм бэ?” гэж загнана.

Үүнд Болд ихэд гайхан ширвэн харж: “Та нарын өмссөн зүүснийг үзвэл, өнөд үзэгдээгүй эдлэл байна. Үг хэлий чинь сонсвол өвчтэй галзуу амьтан шиг, ер нь яаж яваа юун хүмүүс вэ?” гэсэнд тэр гурав даруй буу тулган: “барина, хүлнэ, ална, тална” гэж завдалцан, хүчин хавсарч Болдыг цулбуурын сураар чанга хүлэхэд, залуу хүний царай хөхөрч зүрх догдлон хэрхэхийг нь шүд зуун хүлээнэ ...

위 인용을 통해 봤을 때 볼드가 고향,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경해 즐기는 중에 발가르마와 총을 쏘며 오는 반란군 세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볼드가 이 때까지 보지를 못 했던 사람들의 겉모습은 ‘떠돌아다니는 승려 같은 유랑자, 옛 관리, 총을 맨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장면은 같은 곳에서 다른 세 인물의 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반란군 세 인물에 대한 묘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려와 옛 관리 그리고 인민으로 보이는 인물 셋은 어치르바트 반

란을 주도한 중심 세력에 대한 상징성을 띠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의 나타나는 인물들 중 ‘경거르’의 모습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가가 작품 속에서의 인물 서술 방식에 있어 그 인물의 본질적 성격과 그의 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볼드를 잡아 간 사람들에게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고 있을 때에 이웃집 경거르 왕족이 듣고 앉아 있었다.

경거르는 옛날 영주이면서, 지난 겨울과 봄에 타리아트 후레에 몇 번 갔을 때에 많은 승려들을 몇 번 만나, 폭동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많이 겁을 먹어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던 그는 볼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머리 속에 불빛이 들어오는 듯 기뻐하고, 벌떡 일어나 볼드에 대해 소식을 들어 오겠다고 나가, 오래 된 노란 의상을 입고, 몰래 진스를 앞 주머니에 넣고 급하게 후레를 향해 달려 갔다.

경거르가 가는 길이 이미 어둡고, 연한 별빛이 길을 비추며, 경거르는 "옛 시기가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윗사람한테 어부를 떨고, 아랫사람을 탄압하겠다고 생각하며, 이웃집 볼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드가 죽으면 그 집 노인과 여자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며 간다 ...

이 작품에서 인물 외에 특징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은 서술 방식의 발전이다. 이런 모습은 소설에서의 인물들의 묘사와 이를 통해 그들을 비교하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작가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은 인물들이 하는 역할과 그 들을 두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는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해당된 하나의 예로는 볼드가 감옥에서 감금당하고 있는 동시 발가르마가 볼드의 집에 달려가 그의 식구들에게 낮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텍스트에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작은 한 사원 금조형물이 지는 햇빛에 아름답게 반짝이며, 신도들의

마음 깊이 비추지만, 그 곳에서 다른 사람을 고문해 죽이는 야만한 자가 나온다는 것을 어찌 알겠소? 그 사원 대문 앞에 게르 몇 대가 있으며, 그 게르들 문에 불교의 의미를 담은, 즉 운수를 뜻한 깃발들이 달려 있고, 게르들 사이에 남녀 승려와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저기 몇 명씩 조직적으로 모여 선다. 왼쪽 게르 옆으로 지나가면 수갑과, 쇠사슬 소리가 울리며, 사람들이 고통을 못 참아 치는 소리와, 고무신으로 맞아 아파하는 소리가 들린다. 볼드는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보지도 못하며 이런 일은 꿈, 아니 신화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세 사람이 맨 오른쪽 게르 옆에 도착하자, 세네 사람이 마중 나와 타고 있던 말들을 데려 갔다. 볼드를 말에서 내리게 한 다음 끌고 꽤 떨어져 있는 곳, 늙고 젊은 10여명이 갇혀 있는 곳에 가서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볼드는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처음 보지만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 보더니, 대부분은 말을 못하며, 한, 두 명만 약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들은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나, 죽을 때 고문을 덜 받았으면... 하고 했다. 볼드는 그 말을 듣고 놀라, 더 자세히 물으니, 40살 정도 된 한 남자가 "이 곳은 어치르바트의 부"이란 곳이다. 알고 보니, 오치르 지옥이라는 그 곳이 맞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은 올란바타르에서 국군이라서 나는 잡혀 와서 조사 받게 된지 이미 4일 되었군. 이들은 몇 일 전부터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부분은 승려들이며, 죽이는 것 외에 모르는 이런 야만한 놈들을 처음 본다. 어떤 27살 정도 된 청년에게 이 쪽 사령관이 우리 측 병사가 되어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청년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의 힘줄을 끊어 죽인다고 했다고 한다. 왼쪽 뺨에 생긴 상처를 물으니, 어제 80번 고무신으로 맞았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을 못 했다.

볼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쪽 사람들의 야만한 성격을 놀라며 혐오하고 있었다. 그 순간 오른 쪽 게르 내에서 그 3명의 야만인과 또 다른 3,4명이 같이 나왔다.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고, 이를 드러내고, 그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나는 이를 이렇게 죽일 거야. 너는 그를 그렇게 죽여!"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야만한 짐승 같다. 그런데, 초록색 의상을 입고, 하다그⁵⁷⁾를 들고 있었던 한 여자가 그들 중에 너털거리고 다니며,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 그 여자를 여신이라고 불렀다. 양쪽 다리를 벌렁거리고 볼드 옆에 다가와서 "난 내일 이놈을 죽여 버릴 거야"라고 총으로 찌르고 말하는 년고 있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간 볼드는 저녁에 이런 지옥 같은 것에 잡혀 올 줄 누가 추측할 수 있겠다.

... Нэг бяцхан хийдийн дуган сүмийн алтан ганжир, оройн нарны гэрэлд үзэсгэлэнтэйгээр гялалзаж, мөргөлчин ардууд сэтгэлийг нэвт цацрах боловч түүний дэргэдээс амьтан хүнийг алах бузар яргачин гарна гэж хэн хэрхэн санана.

Тэр хийдийн хажууд үүдэн дээр нь шүхэр туг ба хийморь зэргийг хийсгэсэн хэдэн гэрийн хооронд эр эм, лам хар хэдэн зуун хүнийш тийш бужигналдах ба энд тэнд хэсэг хэсгээр бүлэглэнэ.

Зүүн гэрийн хажуугаар өнгөрөхөд гав гинж хангинаж, хүн гаслах дуу гаран, бас шаахай тас нясхийж хүний ёолох холоос сонсдоно. Болд хүн болсоор ийм юм үзсэнгүй тул үнэхээр нүд халтирч сэтгэл сэржигэн, зүүд зэрэглээ, үлгэр домог мэт болж гайхна.

Өнөөх гурван хүн хамгийн баруун талын гэрийн дэргэд хүрч очсонд өмнөөс нь хоёр гурван хүн угтан морьдыг авав. Болдыг буулгаж урагш хөтлөн нэлээд хол аваачиж хүлээтэй хөгшин залуу арав гаруй хүмүүстэй нийлүүлэн хөлд нь төмөр тушаа торгон орхив.

Болд урьд таниагүй, хэн болохыг мэдээгүй боловч өөрийн шинэ нөхөд болох тэдэнтэй мэндлэн ямар юманд орсон болох учрыг асуувал, олонхи нь дуу гарч чадахгүй, нэг хоёр хүний дорой дуугаар үг үүлэх нь үхэхийг хүлэ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бага тамлуулж алуулбал за яа тэр гэлцэнэ. Болд сочин цааш нарийвчлан асуувал, дөч гаруй настай нэг хар хүн энэ болбол, Бачирбатын яам гэгч юм гэнэ. Үзвэл, Очир там гэж ярилцдаг мөн шиг байна. Миний хүү хотод алба хаадаг тул баригдаж ирэн байцаалгасаар дөрөв хонов.

Эд болбол, саяхан хэд хоногийн дотор гараад ойр хавийн хүн малыг сүйтгэн байна. Их төлөв лам хувраг хүмүүс, алах талахаас өөр

57) 하다그: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거나,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색깔의 실크 천이다.

юм мэдэхгүй зэрлэг араатан шиг загнах ийм аюултай юмыг ер үзсэнгүй гэнэ. Бас нэг хорин долоо найман насны залууд, эдний жанжин гэгч нэг шийдэм адислан өгч, цэрэгт нь яв гэснийг эс хүлээсэн учир, маргааш шөрмөсий нь сугалж ална гэсэн гэнэ. Зүүн талын хацрын шарх бүхнийг асуудал, өчигдөр ная шаахайдуулсан гэж олон үг хэлэлцэж чадахгүй. Болд эдгээр байдлыг үзэж сонсох тутам мөн хүмүүсийг хайрлан энэрч нийгүүлсэхийн хамт тэдний харгис догшинг гайхаж ядах бөгөөд хоосоор сэтгэл эвдрэн байх үес баруун гэрээс өнөөх гурван хүн бас гурав дөрвөн хүний хамт гарч ирээд, нүдээ бүлтийлгэн, шүдээ ярзайлган, тэдгээр хүлэгтэй хүмүүсийг бийүнийг ингэж ална. Чи түүнийг тэгж ал гэж заан хэлэлцэх нь үнэхээр махчин мангас гэгч шиг. Гэтэл нэг ногоон дээлтэй хив хадаг барьсан хүүхэн тэдний дунд салбаганан явах бөгөөд хооронд дуугарахы нь сонсвол дарь эх гэнэ. Алцаганан Болдын дэргэд ирж бийүнийг маргааш ална гэж маузер буугаар чичих нь инээдтэй ийм өлөгчин бас явалцана ...

... 집안에 우는 소리와 소동하고 불안해하며, 그 까닭을 알 수 없자 발당이 말한다. “울고 불안해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시에서 인민군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 말을 하여 안내를 한다면 어쩌면 구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말은 피곤하여 지쳤고 눈도 나빠요. 당신들에게는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나 여자들이고 어린 아이들 밖에 없는 겁니까? 당신의 이웃 ‘정거르’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며 볼드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로 옆에 울고 있던 발가르마가 “제가 갈게요!”라고 하여, 어른들이 말리려 했지만 발가르마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죠?”라며 막 바로 말을 받아치고는 나가버렸다. 발가르마가 집에서 나갈 때 즈음 날이 어두워지고 안개 속에서 그녀가 타고 달리는 회색 말의 두 귀만 움직여 보인다. 발가르마가 멈춤 없이 서남쪽으로 계속 달린다. 밤의 찬 바람이 어둠 속에서 불어올 때 그녀의 속은 싸늘해지고 무서워하지만 발가르마의 머리 속에 사랑하는 볼드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살아진다. 혹시 다시 만날 인연이 없을까 봐 두렵다 ...

... Гэрийн дотор уйлаан майлаан, үймээн сандраан болон учраа олж чадахгүй байхад Балдан өгүүлэх нь: “Уйлж сандраад ямар тус ажээ. Харин хотоос ардын цэрэг ирж байгаа тул эртхэн түүнд хэл болон газарчилбал, гагцхүү аврагдах магадгүй. Миний морь эцсэн, нүд бас муу, та ийм настай, хүүхэд багачуул байхгүй юу? Танай айлын Гонгор яасан бэ?” гэж Болдын өвөг эцэгтэй хэлэлцэхийн хамт галын хажууд уйлан суух Балгармаа “Би явъя!” гэж даруй босоход тэд зэрэг зэргээр шөнө орой болох гэж байхад газар мэдэхгүй ганц хүүхэд чи яаж чадна гэж хоригловч, Балгармаа үүнд “Би эс явбал, хэн явах вэ” гэж шууд марган гарч явав.

Балгармаа гэрээс гарахад нэгэнт бүрий барай болжээ. Хаяа тойроход замхарч бүхий цагаан гэгээний дунд түүний саарал морины хоёр чих соотгонон хөдөлж байх бөгөөд тушааг тайлан мордоход газар цавчлан явахыг тэмүүлэх нь Балгармаагийн хотоос гармагц даруй хатируулан зүүн өмнө зүг явав. Хөөрхий бяцхан охин гүн шөнө юуны тул хэрхэх, явахыг болзоход бэрх.

Хөмсөг шиг шинэ саран агшин зуур далд оров. Эсрэг этгээдээс шөнийн салхи сэр сэр хийхэд Балгармаагийн дотор жихүүцнэ. Сэтгэл дотор нь уягдаж байсан Болд үе үе үзэгдэж, үе үе үгүй болно. Аяа, учирч уулзахын заяа нэн явцуу болжээ...

이런 동시 서술은 근대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소설에서는 작품의 구조가 단성적이었다.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에서는 특히 그렇고 「하얀 달과 검은 눈물」에서도 약하게 드러나지만 본격적이진 않았다. 대부분의 전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한 명의 인물의 시점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는 동시 서술이 이뤄지며 소설의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즉 시간적 서사를 떠나 근대적 플롯이 실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근대적 소설의 모습은 좀더 적극적으로 쓰이는 줄바꾸기나 큰 따옴표(“”)의 사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단은 작가가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승려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본질 고찰

데. 나차도르지의 ‘스님의 눈물’은 비극적인 소설⁵⁸⁾이다. 이 같은 비평을 따라 연구하기 앞서 본 소설의 내용 자체가 비극적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의 인물이 비극적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학자들이 본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비평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어 보자면 ‘본 작품은 당대 스님들의 가짜 모습을 드러낸 희극적인 소설이다’⁵⁹⁾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본 작품은 희극적이면서 비극적인 소설이다’⁶⁰⁾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면 ‘스님의 눈물’ 소설에 대한 비평적 태도가 총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독자들이 실제 1930년대 승려들과 시대적 상황으로 이미 삶의 옳은 길을 잃은 유배화를 어떠한 입장에서 받아들였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기록된 한 문서를 살펴보자면;

“데. 나차도르지는 ‘스님의 눈물’ 작품에서 당시 승려들과 봉건사회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젊은 혁명가들에게 과거의 왜곡된 문화와 그의 부정직한 관습을 혐오하게 한 이념을 주조한 것이 틀림없다. 당시 독자들은 로동 스님과 체랭람 둘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혐오한 것은 사실이다”⁶¹⁾

위에 인용된 부분에서 1930년대 불교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혁명정부와 당시 몽골 문단의 공통된 태도가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의 치우침과 승려들의 방탕한 생활을 비판하는 발표자와 그들의 작품들이 그리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58) 체. 러더이 담바 (Ч.Лодойдамба), ‘증거를 토대로 한 토론 (Баримт түшиж ярих сайхан)’ 문화와 문학 신문 (Утга уран зохиол), 1964. №4, 1

59) 메. 가담바 (М.Гаадамба), 「하나의 인상적인 소서에 대하여 (нэгэн гайхалтай өгүүлийн тухай)」 문화와 문학 신문 (Утга уран зохиол), 1964. №51, 1

60) 데. 남다그 (Д.Намдаг), 「신지식 (Танин мэдэж таниулан мэдүүлэх нь)」 문화와 문학 신문 (Утга уран зохиол), 1966. №8, 1

61) 체. 하스바타르, (Ц.Хасбаатар) 「관찰을 통한 글 (Ажиглалтаас төрсөн бодол)」 젊은 의 진실 (Залуучуудын үнэн), 1986, №127, 1

그리고 몽골의 과도기 문학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에서도 승려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창(二重唱) ‘숨야 양반’⁶²⁾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민요(民謠)의 내용과 등장하는 인물들은 ‘스님의 눈물’에서의 인물들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에서는 서원을 어긴 승려의 모습이 등장하며 둘 다 여자를 위해 일생을 걸고 결국은 인생을 망친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스님의 눈물’에서 주인공 로동 스님은 유배화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숨야 양반’에서 ‘북경 승려(숨야 양반)’⁶³⁾가 왕리(보양히씩)⁶⁴⁾에게 준 사랑은 진심 아니었다는 차이점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 소련의 몽골학자 게. 이. 미하이러브(Г.И.Михайлов)가 ‘두 작품에서 서원을 어긴 승려들을 비판하는 것이 유사하다. 하지만 ‘스님의 눈물’의 경우는 창작의 구성, 주인공의 성격, 그리고 그들 간의 갈등 등이 다르다’⁶⁵⁾라고 했으며 소련의 몽골학자 케. 야츠커브스카야(К.Яцковская)에 의하면 “숨야 양반’에서의 일부분이 ‘스님의 눈물’에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승려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두 작품에서 서원을 어긴 승려들을 비판하지만 그 승려들의 여자와 관계를 살펴보면 로동은 진심으로 사랑한 반면 북경 승려의 경우는 진실한 사랑 아니었다”⁶⁶⁾라고 했다.

이들 학자들의 관찰을 살펴보면 고전 문학에서 당대 승려들의 실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강조할 수 있다면 데. 나찰도르지는 ‘스님의 눈물’에서 당시 승려들의 공통된 모습을 로동 스님의 모습으로 대표해 그들의 실제 상황을 로동 스님이 하는 행동 행동을 통하여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

한 마디로 하자면 ‘스님의 눈물’에서 로동 스님에 관한 직접적인 비판이 없다. 이에 대해서 학자 고자연의 관찰을 살펴보면 “이 작품에 대해 라마승을 비판하고 있다는 입장도 있고, ‘체렐람’과 같은 여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제

62) 이 민요(民謠)에서는 한 여자를 서로 적응하게 한 승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사내랑 결혼하게 되자 결국은 승려가 버림을 받게 된다.

63) 이중창(二重唱) 「숨야 양반」의 주인공이며 ‘북경’는 그의 별명이다.

64) 이중창(二重唱) 「숨야 양반」의 여 주인공이며 ‘왕리’는 그녀의 별명이다.

65) 「데. 나찰도르지의 창작의 방식과 그의 혁신 (Д.Нацагдоржийн уран бүтээлийн улам жлал, шинэчлэл)」 문화와 문학 신문 (Утга уран зохиол), 1969. №4, 1

66) 데. 체데브(Д.Цэдэв), 「데. 나찰도르지」 (Дашдоржийн Нацагдорж-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 Изд. Наука Москва 1974 стр 84-85, 「학술연구 방법론-문학 연구의 근본 (Эрдэм шижилгээний арга зүй, Ур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ын үндэс)」 1974-1996, 원전 arslan.blog.mn, 재인용

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 ‘로동 스님’이나 ‘체랭람’에 대한 작가의 시선 어디에서도 ‘비판’의 그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연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⁶⁷⁾.

이와 마찬가지로 로동과 체랭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로동 스님의 경우에는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마침내 명예와 재산을 잃고 버림을 받은 불쌍한 승려’, 체랭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한 여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가 아니라, 인민들의 삶이 극도의 빈곤에 처한 나머지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몽골의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신에 작가가 독자들에게 로동 스님의 실제 상황과 그의 존재를 비판하거나 고려할 기회를 남겨 주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스님은 너무도 억울하여 어디다 사연을 고소라도 하고 싶었지만 계율을 저버린 주제라 어쩔 수 없었다. 로동스님은 밀려드는 슬픔을 주제하지 못하여 문지방을 붙들고는 울부짖었다.

“애야, 난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가 다른 사내와 사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날 버리지는 말아다오.”

스님은 눈에서는 검은 속세의 눈물이 빗방울처럼 줄줄 흘러내렸다...

... хөөн гаргасанд лам заалдъя гэвч хуврагийн ёсоо эвдсэн тул аргагүй гунирхан байшингийн босгыг нь тэвэрч:

Хүү минь би чамд хайртай

Одоо би хаашаа очих вэ?

Өөр хүнтэй ханилах хамаагүй

Гагцхүү намайг бүү орхи хэмээн хоёр нүднээсээ ертөнцийн хар нулимсыг борооны дусал адил асгаруулна...

(스님의 눈물에서의 경우)

... 그리워했던 완리

아름다운 완리

67) ‘몽골 근대 초기 계몽적 글쓰기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고자연, 2010년, 72 쪽

아이⁶⁸⁾ 그리워하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 물 처럼
눈물이 흘러 내리네 ...

... Санаж явсан Ванлий
Сайхан төрсөн Ванлийгаа
Санасаар бодсоор ай Ванлий
Саравчны усан адилаар
Нулимсаа унагаж явна ...

(숨야 양반에서의 경우)⁶⁹⁾

위에서 인용된 텍스트들은 두 작품의 끝 부분들이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로동 스님은 유배화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버림을 받아 어찌할 줄 모른 채 울고 있는 순진한 승려의 가련한 모습이며 반면, 숨야 양반의 북경 승려는 연애했던 그녀가 다른 사내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어 그녀의 결혼식으로 가는 길에 우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로동 스님의 슬픔과 그의 성격 자체를 그려준다. 그리고 작가가 유배화가 다른 사내와 함께 있어도 보내고 싶지 않는 승려의 아쉬움과 그의 순진하며 마음씨가 부드러운 것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믿고 비는 승려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실체를 말해 준다.

그러면서 작가는 로동 스님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소설을 끝낸다. 그러면 로동 스님의 이후의 일에 대해 작가가 독자들에게 남겨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반면 북경 승려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북경 승려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녀와 연애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에게 버림을 받아 우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북경 승려에게 아쉽고 가련하다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서원을 어겨 망하게 되었다는 비판적인 태도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고전 문학에서의 승려들에 태도와 근대로의 과도기 문학에서의 승려들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이 둘은 내용적인 면에서

68) 감탄할 때 내는 소리

69) 데. 체데브(Д.Цэдэв), 『학술연구 방법론-문학 연구의 근본 (Эрдэм шижилгээний арга зүй, Ур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ын үндэс)』 1974-1996, 원전 arslan.blog.mn, 재인용

유사하지만 스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님의 눈물’에서의 인물들 성격과 작가가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본 작품에서 로동 스님과 유배화 둘의 성격을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작 장면에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세상이 공허하다면서 법륜⁷⁰⁾을 돌리며 수도를 하고 있던 로동스님이 노란 장삼에 붉은 가사를 휘날리며 ‘간단사’ 남쪽의 다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와 반대 방향인 ‘서쪽 지계꾼의 거리’에서는 달콤한 연정의 날카로운 탈날로 무장된 처녀, 유배화⁷¹⁾라고도 하는 체랭람이 백옥같이 하얀 얼굴에 검은 머리카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나오다가 로동스님과 마주쳤다. 유배화는 아편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반지를 맡기고 몇 푼을 빌려 쓰려고 가는 길에 우연히 로동스님과 마주친 것이다. 유배화는 앞에서 오는 스님이 겉으로는 점잖고 마음씨가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경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 Орчлонт ертөнцийг хоосон хэмээх хүрдийг бясалгаж, винайн ёсыг сахисан гэвш Лодон улаан шарыг тунуулсаар, гандангийн наад хүр уруу бууж ирмэгц, уран тачаангуйн хурц илдийг боловсруулахын эрдмийг судалсан авилагч хүүхэн Иүй Бай— хуа хэмээх Цэрэнлхам цагаан харыг гялбалзуулсаар, баруун дамнуурчны шавартай гудамжнаас гарч ирэх нь эсрэг тохиолдов. Иүй Бай — хуагийн хар тамхи тасарсан учир, нэг алтан бөлзгийг бариулж, хэдэн янчаан олж хэрэглэхийг зорьж явсан нь санамсаргүй гэвш Лодон тохиолдохыг үзвэл, тэр үнэхээрийн нэг номхон хувраг бөгөөд сэтгэл зөөлөн, чанар хөнгөн болохыг хэдийнээ ажиглан таниад, хувилгаан адил нэг аргыг олж ...

70) 티베트 불교에서 사용하는 원통형의 경전륜, 통을 돌리며 소원을 빌기도

71) ‘체랭람’은 ‘유배화’라는 중국 이름을 사용했다. “폐지 않은 진주”에서도 중국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신분과 무관하게 중국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다.

위 장면에서 당대 사회에서 지배했던 다른 두 계층의 만남을 볼 수 있다. 한쪽은 계율을 지키는 갑취⁷²⁾ 로동, 다른 한 쪽에는 아편이 떨어져 금반지를 맡기고 몇 푼을 빌려 쓰러 가는 처녀 유배화의 모습이 나온다. 그 둘의 모습에 관한 학자들의 설명과 입장을 살펴보자면 ‘작가가 로동 스님의 역을 표현할 때 고전 문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오히려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려주는 데에서 큰 비중을 두었다’⁷³⁾. 작가가 본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유배화의 한 눈에 알아차렸던 그 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스님의 심리를 그려주기 시작한다. 그 뒤로 소설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씩 구체적인 해석을 해준다. 이러한 인물 성격 표현 방식을 도표로 나타내면,

로동 스님의 경우		유배화의 경우	
1	돈만 보고 움직이는 거만한 승려의 모습	1	아편이 떨어져 금반지를 맡기고 몇 푼을 빌려 쓰러 가는 처녀의 모습
2	여자와 연애하고 서원을 어긴 소심한 승려의 모습		
3	유배화에 의해 모든 재산을 탕진한 순진한 승려의 모습	2	부자 스님의 덕으로 흥청망청 쓰면서도 별로 만족할 줄을 모르는 처녀의 모습
4	결국 유배화에게 버림 받게 된 불쌍한 승려의 모습	3	다른 사내와 바람 핀 처녀의 모습

위에서 보면 작가가 로동 스님의 모습과 성격을 거만한 승려의 모습으로부터 그려주고 소설 진행 과정에서 서원을 어긴 소심한 승려, 모든 재산을 탕진한 순진한 승려, 그리고 마침내 버림받은 가련한 승려의 모습으로 결말 짓는다. 이와 동시 유배화의 모습을 형상화할 때 작가는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고 그녀가 하는 행동을 주로 묘사한다. 이때 작가가 유배화의 행동을 따라 스님의 내면을 표현해준다. 예를 들어 텍스트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아래와

72) 티베트 불교에서 경전에 능통한 스님에게 주는 칭호

73) 데. 체데브(Д.Цэдэв) 「데. 나작도르지 (Дашдоржийн Нацагдорж-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 Изд. Наука Москва 1974 стр 85, 「학술연구 방법론-문학 연구의 근본 (Эрдэ м шижилгээний арга зүй, Ур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ын үндэс)」 1974-1996, 원전 arslan.blog.mn, 재인용

같다.

...그러나 유배화는 거둑 괴로운 보정을 지어 온갖 말을 동원하여 애원하며 붙드는다. 유배화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로동 스님은 ‘평소보다 회사를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해 불경이나 외워 주러 처녀를 따라 그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 гэсэн боловч, Иүй Бай-хуа сандарсан байдлыг гаргаж, дахин давштан зовлонг үгсийг тоочин, элдэвчлэн гуйхад, аргагүй болж бас ч бахардсан байдлыг үзвэл, барьц ихээхэн өгөх биз санаж, ном уншихаар хүүхнийг дагалдан, түүний гэрийн зүг одов ...

...곧바로 유배화가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한 뒤에 간곡하게 부탁했다. “자애로우신 스님, 부디 저희 어머니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스님은 비로소 유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에서는 유배화의 얼굴이 하얗게만 보였는데, 지금 방 안에서 보니 양 볼은 발그스름했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백다라보살 처럼 아름다웠다. 어느덧 스님의 마음속으로 사바세계의 욕망의 안개가 몽게몽게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

... Удалгүй хүүхэн орж ирээд нэг аяга цай өгсний дараа ачит лам минь авралдаа тольдож, миний эхийг эдгээн соёрх гэж гуйна. Лам хүүхний зүг ажиглавал, гадна нарны гэрэлд түүний царай хувхай цагаанаар гэрэлтэж, өглөө бүрий залбирдаг цагаан дар эхийн хөргийн адил үзэсгэлэнтэй гэрэлтэхэд ламын сэтгэлийн дотор ертөнцийн манан бяцхан пур пураар үүсэх бөгөөд ...

...어머니도 좋아진 탓인지 일어나 ‘모두 스님의 덕분입니다’ 하며 합장을 했다. 유배화는 스님에게 외경하는 거룩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런데 유배화가 이야기를 하면서 살며시 짓는 미소가 아주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까맣고 고혹적인 눈동자가 떼굴떼굴 구를 때마다 로동스님의 가슴에 크고 작은 불꽃이 거칠게 타올랐다가 꺼지곤 했다....

... Эх нэлээд сэргэсэн байдалтай бурхан ламын аврал гэж залбирна. Хүүхэн нэгэн адил ламд сүсэг төрсөн байдлыг гарган, хажуугаар нь үг хэлэх ба инээн аашлах нь их л бахтай. Хоёр хар нүдээ жирвэ гнүүлэн эргэлдүүлэх бүрд Лодонгийн сэтгэлд бяцхан ширүүн гал ноцон ноцон алдана ...

...그 뒤부터 유배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다. 유배화가 스님에게 바싹 달라붙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스님은 속세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점점 기울어져 갔다...

... энэ үед хүүхний өдөл нь улам улам илүү болж шадарлах нь нэ н ойр тулав. Ийн тийн ярилцсаар, ламын ертөнцийг сайшаах сэтгэл нь улам нэмэгдэж ...

...실은 유배화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고 가리라고 이미 마음먹고 있었다. 유배화도 기뻐하며 일어나 이부자리를 준비했다...

... мөн ч энд баахан зугаатай болох тул, энэ шөнө дороо хонохыг нэгэнт шийдэв ...

...유배화가 이따금 한번씩 가볍게 기침을 하는데, 스님은 통 잠이 오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처녀한테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아직 여자와 한번도 몸을 섞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잖이 망설여졌다. 게다가 스님이 아닌가. 그러나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뒷간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일어섰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처녀를 품 안에 넣으리라 다짐하고 나갔다...

... Тус тусын ор дэвсгэр дээр, унтсан хойно, мэдээжийн хэрэг хүүхэн хааяа хааяа зөөлөн ханиана. Ламын нойр үл хүрнэ. Лам хэдийгээр хүүхэнд халдахыг хүсэвч, угаас эхнэр хүүхэдтэй төдий л ихэд холилдсонгүй тул баахан халширна. Лам тэсэж ядахдаа шээнэ гэж

шалтгаалан босож эргэж ирэхдээ хүүхний өвөрт орё гэж сэтгэж г
адаа гарч одов ...

... “어머, 스님, 조금 있다가 들어오세요.” 난데없는 유배화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은 유배화의 말대로 문밖에서 서성이고 섰다가 갑
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집계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를 뚫고 그
작은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녀가 등불 아래서 속옷을 벗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스님의 가슴은 두근두
근 뛰기 시작했다. 스님의 공허한 마음은 어느세 속세로 옮겨져 있었고,
계율의 도는 이미 바론 조⁷⁴⁾로 훌쩍 날아가 버렸다...

... Ламбугуай бяцхан байзнаарай гэж хүүхэн өгүүлэхэд лам юу бол
охыг хүлцэж ядан, долоовор хуруугаа норгож, байшингийн цаасан
цонхыг цоолоод, мөнхүү бяцхан нүхээр ажиглавал, хүүхэн хөнжил
дээрээ дотуур хувцсаа тайлж байх нь дэнгийн гэрэлд үзэсгэлэнтэй
үзэгдэж, сэтгэлийг хөдөлгөхөд ламын хоосон чанарын бодлогоо хэд
ийнээ нөгөө ертөнцөд шилжиж винайн ёс нэгэнт баруун зууд очоо
д, тачаангуйн гал дүрэлзэн бадрахад яаран орж хүүхний хамт нойр
сов ...

... 어느 날 로동스님이 집에 와서 대문 고리를 잡아당기는데 문이 안으
로부터 잠겨 있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유배화가 한 사내를
껴 안고 애무를 하고 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유배화의 옛 애인이라는
녀석이 바로 저놈이 틀림없으렸다.

로동스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한바탕 싸울 심산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자신도 모르는 무슨 말을 질러댔다. 그러나 유배화는 조금도 놀
라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등 뒤에는 젊고 든든한 사내 녀석을 세워놓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륜을 말하고 나서 욕설까지 퍼붓고 집 밖으
로 내쫓아 버렸다 ...

... Нэг өдөр гэвш Лодон гэртээ ирээд байшингийн хаалгаа татвал д

74) 티베트의 수도 라싸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타락을 의미함

отроос түгжжээ. Цонхны булангийн завсраар нууж үзвэл Иүй Бай-хуа нэг залуу хар хүнтэй тэврэлдэн сууна. Иүй Бай-хуагийн хуучны зузаан янаг бий гэсэн нь энэ мөн байна гэж лам нэгэнт таниад уур нь бадарч занчилдъя гэж байшингийн хаалгыг хэмх цохин орж, хэрүүл шуугиан гаргав. Гэтэл хүүхэн өчүүхэн ч эмээх зовох байдалгүй бөгөөд харин ламд дургүй учрыг хэлж хараан загнаж, хөөн гаргасанд ...

...스님은 너무도 억울하여 어디다 사연을 고소라도 하고 싶었지만 계율을 저버린 주제라 어쩔 수 없었다. 로동스님은 밀려드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여 문지방을 붙들고는 울부짖었다...

... гаргасанд лам заалдъя гэвч хуврагийн ёсоо эвдсэн тул аргагүй гунирхан байшингийн босгыг нь тэвэрч:

Хүү минь би чамд хайртай

Одоо би хаашаа очих вэ?

Өөр хүнтэй ханилах хамаагүй

Гагцхүү намайг бүү орхи хэмээн хоёр нүднээсээ ертөнцийн хар нулимсыг борооны дусал адил асгаруулна...

위에 인용된 텍스트들을 보면 작가가 유배화의 행동과 로동 스님의 내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간 본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결국 스님 또한 존경받는 승려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 소설의 진행 과정에서 작가의 서술 특징 중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고자연의 분석을 예로 들자면 ‘이 소설 역시 짧은 소설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구성이 매끄럽고 묘사가 생생해서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⁷⁵⁾ 이러한 서술 방식은 데. 나착도르지의 소설의 발전 과정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스님의 눈물」인 것이다.

본 작품에서 위에 도표로 보여준 것처럼 부유한 스님의 거만한 모습을 그

75) 고자연, 「몽골 근대 초기 계몽적 글쓰기 연구」, 인하대석사학위논문, 2010년, 72 쪽

의 버림을 받은 가련한 모습과 비교해 그 중간에 스님의 내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준다. 이럴 때 작가는 서술자의 서술과 소설 속에서의 인물들 시선을 통해 로동 스님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준다.

...유배화는 앞에서 오는 스님이 걸으로는 점잖고 마음씨가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경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 Лодон тохиолдохыг үзвэл, тэр үнэхээрийн нэг номхон хувраг бөгөөд сэтгэл зөөлөн, чанар хөнгөн болохыг хэдийнээ ажиглан таниад ...

위 텍스트를 보면 본 소설에서의 유배화가 하는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작가가 서술자를 통해 로동스님의 걸모습을 그려주고 유배화의 시선을 통해 로동 스님의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준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소설 진행 과정에서 반복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까맣고 고혹적인 눈동자가 떼굴떼굴 구를 때마다 로동스님의 가슴에 크고 작은 불꽃이 거칠게 타올랐다가 꺼지곤 했다. 유배화는 직감적으로 스님의 가슴 속에 타고 꺼지는 불꽃을 알아차렸다...

... Хоёр хар нүдээ жирвэгнүүлэн эргэлдүүлэх бүрд Лодонгийн сэтгэлд бяцхан ширүүн гал ноцон ноцон алдана. Хүүхэн нэгэнт энэ байдлыг мэдсэн тул ...

여기에서 보면 유배화는 로동 스님의 진면모를 간파하듯이 그의 본질과 내면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이와 동시 작가가 서술자의 서술 안에서 로동 스님의 내면을 담아 준 경우도 있다.

...스님은 비로소 유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에서는 유배화의 얼굴이 하얗게만 보였는데, 지금 방 안에서 보니 양 볼은 빨그스름했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백다라보살 처럼 아름다웠다. 어느덧 스님의 마음속으로 사바세계의 욕망의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

... Лам хүүхний зүг ажиглавал, гадна нарны гэрэлд түүний царай хувхай цагаанаар гэрэлтэж, өглөө бүрий залбирдаг цагаан дар эхий н хөргийн адил үзэсгэлэнтэй гэрэлтэхэд ламын сэтгэлийн дотор ертөнцийн манан бяцхан пур пураар үүсэх бөгөөд ...

... 그날 오후, 스님은 도인하르⁷⁶⁾에 있는 집과 불경 속에 모신 부처님은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유배화가 깜짝 놀란 듯 말했다.

“어머!”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스님을 모셔다 드릴 인력거도 없고, 비도 내리는데 어찌나?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세요.”

스님은 피곤하기도 했고, 정말 밤이 되어 있었고, 밖에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실은 유배화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고 가리라고 이미 마음먹고 있었다...

... Ийн тийн ярилцаар, ламын ертөнцийг сайшаах сэтгэл нь улам нэмэгдэж, нэг үдшийн зуур Дуйнхарын аймаг дахь дөрвөн ханатай гэр ба хэдэн гүнгэрваатай бурхнаа мартжээ. Түүнээс хүүхэн: « өнөө нэгэнт орой болсон бөгөөд бидэнд таныг хүргэн өгөх уналгагүй гээс гадна, бас бороо орж байгаа тул, энэ шөнө энд морилж хоноод маргааш харивал сайн биш үү» гэсэнд лам хойш нэгэнтээ бодсон боловч үнэхээр орой болж, бороо орж байгаа мөн ч энд баахан зугаатай болох тул, энэ шөнө дороо хонохыг нэгэнт шийдэв ...

...스님은 유배화의 말대로 문밖에서 서성이고 섰다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집계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를 뚫고 그 작은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녀가 등불 아래서 속옷을 벗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스님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스님의 공허한 마음은 어느세 속세로 옮겨져 있었고, 계율의 도는 이미 바론 조로 훌쩍 날아가 버렸다. 마음에 정욕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탐욕스러운 사내가 된 그는 방으로 들어가 눈부신 유배화를 끌어안았다. 유배화는 기다렸던 터라 스님의 몸을 한 구석도 놓치지 않고 알뜰살뜰하

76) 간단사 근처의 스님들이 사는 동네 이름

게 끌어주었다. 처음 ‘살맛’을 알게 된 로동 스님에게는 속세의 일이 마냥 황홀하기만 했다...

... Ламбугуай бяцхан байзнаарай гэж хүүхэн өгүүлэхэд лам юу бол охыг хүлцэж ядан, долоовор хуруугаа норгож, байшингийн цаасан цонхыг цоолоод, мөнхүү бяцхан нүхээр ажиглавал, хүүхэн хөнжил дээрээ дотуур хувцсаа тайлж байх нь дэнгийн гэрэлд үзэсгэлэнтэй үзэгдэж, сэтгэлийг хөдөлгөхөд ламын хоосон чанарын бодлогоо хэдийнээ нөгөө ертөнцөд шилжиж винайн ёс нэгэнт баруун зууд очоод, тачаангуйн гал дүрэлзэн бадрахад яаран орж хүүхний хамт нойрсов. Түүнээс ертөнцийн хэрэг ламын сэтгэлд тааламжтайг тоочвол барахгүй ...

...속세의 올라미에 걸려든 로동스님은 유배화에게 폭 빠져 다른 어떤 할 일도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스님은 ‘간단사’에 있는 집과 감쥐가 되려고 모았던 재산을 몽땅 팔아서 유배화에게 풍족하고 멋진 집을 마련해주고 속인이 사는 동네로 내려와 동거하게 되었다...

... Гэвш Лодон ертөнцийн цаламд нэгэнт урхилагдаж, хүүхний аргазальд автагдаад юу гэвч гажуугүй болсон бөгөөд яван явсаар лам гандан дахь хашаа байшин ба гавж болохын тулд бэлтгэсэн юмаа бүгдийг нийлүүлж, Иүй-Бай-хуад гуа сайхан элбэг дэлбэг хашаа байшин төхөөрч хорооны газар хамтран суух болов ...

위에 인용된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서술자가 로동 스님의 내면을 해석해 주는 경우가 보인다. 이럴 때 서술자가 로동 스님의 변해가는 내면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붙여 준다.

IV. 데. 나착도르지와 이인직 문학 비교

4.1 데. 나착도르지와 이인직의 개화기 문사로서 역할의 유사성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데. 나착도르지는 근대 문학으로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차원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근대 문학으로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문학으로 ‘신소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인직은 최초의 신소설 작가로서 구소설과 근대소설로 이어지는, 소설의 전통적 연결을 시도하고 확립한 주요 작가이다.⁷⁷⁾ 이런 맥락에서 데. 나착도르지와 이인직의 문학을 비교하는 작업은 한몽 과도기 문학 차원의 비교 연구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이 둘이 몽골과 한국에서 각각 문학사적 위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두 작가의 삶과 창작활동에 있어 당시 사회에서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몽골에서 1930년대는 러시아에 의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개화기로 이 시기 본격적으로 창작활동 시작했던 데. 나착도르지를 몽골의 과도기 문학의 대표 작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시기를 개화기로 보고 있다. 이 당시 나타난 개화기 문학 중 가장 대표적 장르는 1900년대 등장한 신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몽골과 한국의 개화기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30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단순한 시간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각 국가마다 시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화기’라는 시대적, 정치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각각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80년대 일본의 ‘정치소설’에서 나타나는 정치사상에 대한 계몽적 소설의 모습이 한국의 1990년대의 신소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867년 메이지 유신을 통한 일본의 개화가 1894년 갑오개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77) 한국민족문학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5694&cid=46645&categoryId=46645>

신소설을 시작하고 이를 완성한 작가인 이인직을 한국 과도기 문학의 대표로 볼 수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양국 과도기 문학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당시 대표 작가들은 창작활동에 있어 지니고 있는 계몽적 목표의 유사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양국의 개화기라는 시기와 그 시기에서 작가들이 가진 역할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두 작가 모두 개화기의 문사의 위치로서 봉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계몽적 차원의 글쓰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데. 나착도르지가 몽골 개화기의 문사였다면 이인직은 한국의 개화기의 대표적인 문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문사란 개화기 시기에 계몽적 의도를 가지고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친 당시의 대표적 지식인을 이른다. 문학에만 중점을 두는 ‘작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사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 이인직과 데. 나착도르지는 각국의 문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두 작가의 삶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유학의 경험, 그리고 정치적 활동과 이어지는 창작활동을 보면 그들 간에 공통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데. 나착도르지는 러시아와 독일에 유학했다면 이인직은 1900년 일본 동경의 정치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데. 나착도르지는 당시 ‘인민군’, ‘젊은이들의 진실’, ‘신세대’잡지 등 신문 발행과 발간에 관여했다면 이인직은 ‘국민신보’, ‘만세보’의 주필이었고 ‘대한신문’을 발행했다.

또한 데. 나착도르지는 소련과 몽골의 두 나라간의 국제 관계에 관여, 제1헌법 작성, 수흐바타르 등 혁명지도자들의 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인직은 일본 감정 협력, 선릉참봉 중추원부찬의, 경학원사성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이 둘은 문학 외에서의 창작활동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데. 나착도르지는 몽골청년조합 회원들과 연극 상영을 했으며, 오페라 <오치르타이의 세 사람>을 제작했다. 이인직은 원각사를 세워 「은세계」를 상영하는 등 신연극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위의 예들 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공통점은 데. 나착도르지는 몽골의 근대 문학 이행에 큰 역할을 하고 근대 문학적

실험을 했다는 것, 이인직은 신소설을 통해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두 작가 모두 개화기의 문사로서 이전의 고전 문학과 이후의 근대 문학의 중간 다리로서 각국의 근대 문학이 배태되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2) 데. 나착도르지와 이인직 문학에서 나타나는 계몽 사상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나착도르지와 이인직의 문학에서는 일정한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를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째, 계몽 사상의 강조, 둘째, 구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우선 계몽사상의 강조를 살펴어 보면 두 작가 모두 개화를 통하여 새로운 신식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의 로동 노인과 「혈의 누」 김관일의 결심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거나 비약적인 모습이 있다. 이는 작가가 신식 교육이나 개화를 해야 한다는 수단으로서 비행기나 청일 전쟁을 소설에서 사용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롭상’은 원래 신중한 사람인지라 우선 선불리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아는 관료 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차’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모든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다. 시골의 야생 상태에 빠져 시골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지식과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지만,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으므로 내년부터 일을 시키려고 했던 열두 살 된 아들만을 인민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⁷⁸⁾

세상에 뜻이 있는 남자 되어 처자만 구구히 생각하면 나라의 큰일을 못하는 지라. 나는 이 길로 천하 각국을 다니면서 남의 나라 구경도 하고 내 공부 잘한 후에 내 나라 사업을 하리라, 하고 밝기를 기다려서 평

78)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

양을 떠나가니, 그 발길 가는 데는 만리 타국이라.⁷⁹⁾

... “오냐, 학비는 염려 말아라. 우리들이 나라의 백성 되었다가 공부도 못하고 야만을 면치 못하면 살아서 쓸 데 있느냐. 너는 일청전쟁을 너 혼자 당한 듯이 알고 있나 보다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당하지 아니한 일이나. 제 곳에 아니 나고 제 눈에 못 보았다고 태평성세로 아는 사람들은 밥벌레라. 사람이 밥벌레가 되어 세상을 모르고 지내면 몇 해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청전쟁 같은 난리를 당할 것이라. 하루바삐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부인 교육은 네가 맡아 문명 길을 열어 주어라.”⁸⁰⁾

위의 예를 보면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에서 로동 노인이 비행기를 보고 자신의 아들을 인민 학교에 입학시켜 신식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런 신식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혈의 누」에서 김관일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런 신식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두 작가의 작품 속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다면 이 과정에서도 그들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데. 나착도르지는 인민들은 교육을 통해 새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반면, 이인직은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유, 나라의 발전에 큰 비중을 둔 태도를 보인다. 「혈의 누」의 김관일과 옥련, 「은세계」의 최병도는 모두 개화 교육의 필요성을 나라의 발전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 작가의 같은 시대적 목표와는 다르게 몽골과 한국의 각각의 나라의 개화기의 상황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몽골의 경우 1930년대 소련에 의해 개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화 사상과 더불어 사회주의 이념까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이와 다르게 1990년대 한국은 사회주의 사상이 아직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민족주의적 사고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데. 나착도르지는 민중을 중심으로 개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으며, 이인직은 개화를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79) 이인직, 『은세계(외)』, 종합출판, 2004, 「혈의 누」, 21쪽

80) 남송우, 서은선, 손동주, 윤일 공저, 『근대 초기 한일 문체문학 비교연구』, 2011, 23쪽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⁸¹⁾

위에서 보면 이인직은 개화를 중요시하면서도 여성의 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혈의 누」와 「은세계」의 옥련과 최옥순과 같은 여성 인물은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는다. 이 같은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은 데. 나착도르지의 「하얀 달과 검은 눈물」에서 등장하는 체르마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식모로 일하던 닥당네 집을 떠나 사랑하는 출탤과 함께 동거하게 된 체르마의 모습은 여성의 자유와 자유연애라는 작가의 사조의 반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인직은 여성의 교육을 데. 나착도르지는 여성의 자유를 강조했다. 이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또 차강사르 명절이 다가올 때 무슨 이유인지 닥당의 집은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사 준비를 하였다. 닥당의 마누라가 체르마도 시골에 같이 데리고 간다는 데 어느 날 출탤이 와서: "지금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돼."라고 말했다. 체르마는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다가 곧장 집으로 와서 자신의 짐들을 챙겨 출탤의 집에 찾아갔다. 닥당의 마누라는 화를 내며 몇 번 욕을 하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출탤의 집이 아무리 때가 끼고 구멍이 났다한들, 닥당의 크고 하얀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몇 배는 행복하며 자기가 원할 때에 일어나서 할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출탤과 같이 산지 1년이 지나 '차강사르'의 첫날이 되어 처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체르마는 도시에 온 이후 지금까지 '차강사르' 그믐날 저녁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 일은 처음이었다.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 비단이나

81) 이인직, 「혈의 누」, 『은세계(외)』, 종합출판, 2004, 64쪽.

털가죽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찢어지지 않은 옷을 입을 것이다.⁸²⁾

두 작가 모두 작품에서 계몽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형상화했다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두 작가 모두 작품을 일종의 계몽적 의도에 의해 창작했고, 이 과정에서 중심 사상의 설득력을 위하여 실제 역사적 사건을 소설에서 도입했다. 데. 나착도르지는 어치르바트 반란을 토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을 썼고 이인직은 청일 전쟁이 「혈의 누」에서 소설적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가 지나치게 반영되어 자신의 계몽 사상 강조를 위해 실제 사건을 변형 혹은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서은선⁸³⁾은 「혈의 누」에서 이인직은 전쟁 상황을 청나라와 일본의 전과 위주로 기록하기보다는 정치에 무지하던 ‘백성’이 국난이라고 여기며 책임감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인민의 삶의 계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청일 전쟁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 장면 제시 없이 축소하면서 외세인 일본군의 승리와 횡포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계몽 사상의 강조를 위한 실제 역사의 변형 및 왜곡은 데. 나착도르지의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도 나타난다.

장군은 일어나 당황해하며 뛰어나갔다.

그리고 병사들을 준비시켰다. 노인들, 승려들, 마녀 같은 여자들이 모여 남루해서 너털너털해진 망가진 총과 칼, 대나무 활, 총알, 막대기까지 들고 다라니경을 외우며 한 줌의 흙을 주머니에 넣으며⁸⁴⁾ 갑옷을 입은 것처럼 강력한 인민군대를 무찌르자며, 군인 몇 백을 얼마 없는 총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공중에 비행기가 날아 왔다. 반란군은 두렵고 당황하여 흩어진다. 장갑차가 왔다. 그들은 모였다 흩어졌다하며 여기저기에서 죽는다. 순식간에 다른 세계가 되었다. 북쪽 작은 언덕 위에 붉은 깃발이 내달린 것을 보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나와 인민군 만세라며 크게 외칠 때 반란군들은

82) 「하얀 달과 검은 눈물」

83) 서은선, 윤일, <이인직 신소설 『혈의 누』 연구> 『근대 초기 한일 문예문학 비교연구』, 2011, 17-26 쪽

84)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머니에 흙을 넣고 가면 승리한다는 당시 불교의 왜곡된 미신.

혼이 빠져나갔으며 인민의 영광은 고양된다. 85)

위의 예를 보면 반란군과 인민군의 상황을 매우 극단적으로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란군의 망가진 총과 칼, 대나무 활은 인민군의 비행기, 장갑차와 대조되어 제시되는 것이다.

구체제에 대한 비판은 데. 나착도르지의 「보이지 않았던 것」, 「스님의 눈물」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태도는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은세계」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데. 나착도르지는 혁명 정부 이전 구체제를 주도한 불교와 귀족 세력을, 이인직은 부패한 정부 관리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작가 모두 구체제의 극복만이 개화로 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체제를 상징하는 인물들은 사실 관계를 떠나 지나치게 악하거나 잔인한 인물들로 그려지게 된다.

...(막동) “나라는 양반님 네가 다 망하여 노셨지요. 상놈들은 양반이 죽이면 죽었고, 때리면 맞았고, 재물이 있으면 양반에게 빼앗겼고, 계집이 어여쁘면 양반에게 빼앗겼으니, 소인 같은 상놈들은 제 재물 제 계집 제 목숨 하나를 위할 수가 없이 양반에게 매였으니, 나라 위할 힘이 있습니까. 입 한 번을 잘못 놀려도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오금을 꿰어라 귀양을 보내라 하는 양반님 서술에 상놈이 무슨 사람값에 갔습니까. 난리가 나도 양반의 탓이올시다. 일청 전쟁도 민영춘이란 양반이 청인을 불러왔답니다. 나리께서 난리 때문에 따님 아씨도 돌아가시고 손녀 아기도 죽었으니 그 원통한 귀신들이 민영춘이라는 양반을 잡아갈 것이올시다.”86)

... 경거르느 옛날 영주이었기 때문에 지난 겨울과 봄에 타리아트 후레에 몇 번 갈일이 있었는데 그가 갔을 때에 많은 승려들을 만나, 폭동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많이 겁을 먹어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던 상태였다. 그는 볼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머리 속에 불빛이 들어오는 듯 기뻐하고, 벌떡 일어나 볼드에 대해 소식을 알아 오겠다고 나가, 오래 된 노란 의상을 입고, 몰래 진스를 앞 주머니에 넣고 급하게

85) 「보이지 않았던 것」

86) 이인직, 『은세계(외)』, 종합출판, 2004, 29쪽

후대를 향해 달려 갔다.

경거르가 가는 길은 이미 어둡고, 희미한 별빛이 길을 비추는데, 경거르는 다시 옛날처럼 된다면, 나는 윗사람한테 아부를 떨고, 아랫사람을 지배하겠다고 생각하며, 이웃집 불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드가 죽으면 그 집 노인과 여자들을 속여 빼앗겠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다.⁸⁷⁾

위 「보이지 않았던 것」과 「혈의 누」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이인직은 나라의 약화된 원인을 봉건의 억압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데. 나착도르지는 봉건적 사회의 대표적 인물인 경거르의 모습을 통해 구체제 즉 봉건적 사회의 본질적 성격이 “윗사람한테 아부를 떨고,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 작가가 같은 목적을 가고 있지만 그들의 비판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인직은 사회 체계적 비판이 이뤄지는 반면 나착도르지는 좀더 감정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체제, 봉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이를 대표하는 인물과 세력을 완전한 악으로 설정하여 묘사하는 부분의 공통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두 작가 모두 이들을 지나치게 잔인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 장군들은 마음껏 자다가 잠자리에서 굶은 늑대 같이 일어나서 순서도 없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 한 곳에 두세 명이 모여 양을 잡아 먹듯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 그 사람의 가슴을 찔러 가르다. 그 때 칼날에 연골의 와삭와삭하는 소리가 나는데, 온몸을 떨 때 심장을 뿔자 그 사람은 큰 소리내고 죽었다...(중략) 그 사람의 눈은 휘둥그레지고 온 몸은 떨며 나를 바로 총으로 쏘아 죽여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괴롭혀 죽인다고 하며 두세 명이 그를 잡아 그의 피부를 칼로 도려내고 가르며 힘줄을 하나 하나씩 뿔는다. 그 다음에 죽기 직전인 상태로 남겨 둔 채 서너 시간 동안 그가 비명 지르게 하자 그들의 마음은 인제 흡족하다는 듯이 그날의 즐거움을 끝냈다.⁸⁸⁾

87) 「보이지 않았던 것」

88) 「보이지 않았던 것」

... 최병도를 형틀 위에 동그랗게 올려매고 형문을 친다. 형방 영리는 목청을 돋워서 첫 매부터 피를 묻혀올리라 하는 영을 전하는데 형문 맞는 사람은 고사하고 집장 사령이 죽을 지경이라. 사령은 젓 먹던 힘을 다 들여 치건마는 감사는 혈장한다고 벼락령이 내린다. 집장 사령의 죽지를 떼어라, 오금을 끊어라 하는 서슬에 집장 사령이 매질을 어떻게 몹시 하였는지 형문 한 치에 최병도가 정신이 있으랴 없으랴 할 지경인데...⁸⁹⁾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작가 모두 계몽과 개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구 체제로 상징되는 이전의 봉건 사회를 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몽의 강조와 구 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 정신이 이 두 작가의 유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아시아 개화기 문학의 보편성이 계몽 사상의 강조와 구 체제 비판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89) 위에 책, 284-285쪽

V. 결 론

본 연구에서 데. 나착도르지의 소설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 「하얀 달과 검은 눈물」, 「보이지 않았던 것」, 「스님의 눈물」 등 네 가지의 작품들을 선택해 살펴어 보았다. 우선적으로 아직 한국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데. 나착도르지의 작품인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 「하얀 달과 검은 눈물」, 「보이지 않았던 것」을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중에서 「스님의 눈물」은 권성훈의 역을⁹⁰⁾ 사용하였다.

또한 몽골의 과도기의 대표적인 작가인 데. 나착도르지의 삶과 작품의 창작 배경을 소개하였다. 데. 나착도르지는 매우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를 통해 신식 교육을 받았고 필경을 통해 그의 작가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15세 때 인민혁명을 경험한 나착도르지는 1921년부터 인민군사부의 정식 서기관이 되며 그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로 국가의 중요 요직의 인물들의 비서로 일하며, 혁명 정부의 중요한 인재로 주목 받게 되었다.

데. 나착도르지는 신식 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하여 자진하여 1925년 소련 레닌그라드의 군사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1926년부터 1929년까지 독일의 라이프치히 시의 언론인 학교를 졸업했다. 해외에서의 경험은 그가 이전의 봉건적 질서를 거부하고 근대적 지식과 문화를 소개한다는 문학적 목표의 밑거름이 되었다.

귀국 이후 아카데미 회원이 된 1931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37년까지 그는 본격적인 문학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문학 활동에도 불구하고 30년대 정치적으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 1년 동안 당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장기간 감금 당했다. 이후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1937년 사망하였다.

데. 나착도르지의 문학 작품을 엄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창작 배

90) 더르즈점드 앵흐벨트외 지음, 난딩췌췌그와 정용환 외 역, 『샤르 허브의 아지랑이』, 2006

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로 2-2에서는 데. 나착도르지의 작품을 당시 몽골 역사적 사건과 상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은 혁명 정부에서 몽골에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련으로부터 제 1호 항공기를 수입한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임을 살피어 보았다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는 타르이아트 사원에서 이뤄진 반혁명 운동을 바탕으로 썼으며, 그의 반불교 정신은 「스님의 눈물」에서 로동스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불교 정신은 불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몽골의 봉건 시대를 지배하는 왜곡되고 타락한 불교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당대 봉건 사회의 억압과 평범한 사람들 간의 모순은 「하얀 달과 검은 눈물」을 통해 나타났다.

3장에서는 작품의 본격적인 작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에서는 룽상 노인의 소설의 역할을 살펴 보았다. 룽상 노인은 지방과 도시를 비교하는 관찰자적 입장에 서 있었다. 룽상 노인은 비행기를 보고 그저 놀라워만 하고, 하늘에 비는 다른 도시 노인들과 달리 비행기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관련된 사람에게 물어봄으로써 근대성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보인다. 소설 초반의 룽상의 모습과 후반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 작가는 몽골 인민 역시 근대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얀 달과 검은 눈물」에서는 이 같은 근대성으로의 정신적 이동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수법은 비교이다. 작가는 의식적으로 부유한 탁당의 집안의 사람들과 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체르마를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몽골 하층민들이 억압당하는 이전의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작가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는 「하얀 달과 검은 눈물」에서 나타난 비교를 통한 동시 묘사를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서구 교육을 받고 온 엘리트 지식인인 주인공이 전근대적 사고에 젖어 있는 다른 몽골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몽골의 근대화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스님의 눈물」에서는 지금까지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근대를 지향하는 정신이 아닌 순수한 인간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전의 작품에서 데. 나착도르지는 근대적인 것을 철저히 옹호하며 당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스님의 눈물」에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작품의 감상을 순전히 독자의 몫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 나착도르지의 삶과 작품 창작 배경,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보면 데. 나착도르지의 작품 창작의 의의는 근대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몽골의 일부 학자들은 그의 작품이 리얼리즘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위에서 살펴어 보았듯이 그가 창작을 함에 있어서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을 다룬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의 지나치게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에서 치밀한 리얼리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그의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근대, 계몽 정신은 당시 몽골 사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데. 나착도르지는 그런 의미에서 몽골 근대 문학을 준비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맥락을 통해 본다면 마지막으로 소개된 「스님의 눈물」에서는 이전의 계몽적 모습에서 일정 부분 탈피하여 근대적 문학의 요건을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의 과도기적 문학에 해당하는 신소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작가인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은세계」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두 작가는 각국의 개화기를 주도한 문사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두 작가 모두 외국으로의 유학의 경험이 있으며, 신문 잡지 등의 간행과 발간에 깊게 관여했다. 또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했고 문학 외적인 문화 운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런 다방면적 활동을 통해 이 둘을 문사라는 틀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적인 부분은 두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이다. 이런 유사성은 계몽 사상 강조와 구 체제, 즉 본건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나타나는 계몽 사상 강조와 구 체제 비판은 「혈의 누」와 「은세계」에서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데. 나작도르지와 이인직, 이렇게 한몽 현대 문학의 시작점을 비교함으로써 두 국가간비교 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얼마간의 유사성을 통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개화기 문학을 통한 범아시아적 보편적 개화기 비교문학 연구는 후일의 과제로 삼겠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자연, 「몽골 근대 초기 계몽적 글쓰기 연구」, 인하대석사학위논문, 2010.
- 서은선, 윤일, 「이인직 신소설 『혈의 누』 연구」, 『근대 초기 한일 문제 문학 비교연구』, 2011
- 이선아, 「몽골 영웅서사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4.
- 이안나, 『몽골 현대시선집』, 문학과지성, 2003
- 이인직, 『은세계(외)』, 종합출판, 2004
- 제러미 호손, 손영도 역, 『소설연구의 첫걸음』, 동인, 2001

2. 국외문헌

- 베. 서드넴, 『데. 나착도르지 전기』 국립 출판사, 1966
- _____, 「데. 나착도르지의 연보 작품」, УННЕН, 울란바타르, 1966
- _____, 『데. 나착도르지에 대한 기록』, 울란바타르, 1966
- 시. 나착도르지, 「데. 나착도르지 연보와 관련 된 몇 개의 정보」, УННЕН, 울란바타르, 1966
- 더르즈접드 앵흐벌트외 지음, 난딩쎄쎄그와 정용환 외 역, 『샤르 허브의 아지랑이』, 2006
- 메. 가담바, 「하나의 인상적인 소서에 대하여 (нэгэн гайхалтай өгүүлийн тухай)」, 문화와 문학 신문 (Утга уран зохиол), 1964
- 체. 리더이 담바, 「증거를 토대로 한 토론」 (Баримт түшиж ярих сайхан)'

- 문화와 문학 신문 (Утга уран зохиол), 1964
- 데. 체데브, 「데. 나찰도르지」, 「학술연구 방법론-문학 연구의 근본 (Эрдэм шижилгээний арга зүй, Ур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ын үндэс)」 1974-1996
- _____, 『학술연구 방법론-문학 연구의 근본 (Эрдэм шижилгээний арга зүй, Ур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ын үндэс)」, 1974-1996
- 체. 하스바타르, 「관찰을 통한 글 (Ажиглалтаас төрсөн бодол)」, 젊은의 진실 (Залуучуудын үнэн), 1986
- 데. 남다그, 「신지식 (Танин мэдэж таниулан мэдүүлэх нь)」, 문화와 문학 신문 (Утга уран зохиол), 1966
- 데. 나르만다흐, 「1920-30년대 몽골 한국 단편소설 비교연구」, 2003
- 베. 찰람이따르, 『왜곡에서 선동한 1932년대 운동』, 울란바타르, 2013
- Bawden C.R, 『The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1968
- 『몽골현대문학약사』, 몽골과학아카데미 편, 1968
- 『몽골 현대 문학사 제1권(1920-1940)』, 국립출판사, 울란바타르, 1985

부 록

데. 나작도르지의 작품 번역



「새로운 문화와 놀라움」

봄의 강렬한 해빛에 겨울의 눈더미가 녹아 땅 속으로 흡수되면서 어린 풀이 자랄 수 있게 자양물이 되고 좋지만, 이는 운송업을 하고 사는 룽상에게 여름과 겨울 동안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일을 해서 산 그의 신발을 적시고 더럽히는 것은 얼마나 아까울까.

우차의 바퀴가 빼걱거릴 때마다 ‘룽상’의 마음은 슬퍼지고, 황소가 빈둥거릴 때마다 그는 화가 나 답답해진다. ‘룽상’은 어렸을 때부터 우차를 자기의 친구로 하고, 들판을 집으로 삼고 살았지만 불쌍한 그는 왜 쉬고, 배부는 시간을 갖기를 원치 않는가? 13살 때부터 56살이 될 때까지 ‘샤링골’과 ‘울란바타르’시 사이에 ‘다브’의 가족 먹을거리를 운반하고, ‘발당’의 장작을 운반하고 살아 왔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있는 산과 언덕, 울퉁불퉁 길 등을 구서구석 알며, 구멍 속에서 나오는 다르브가⁹¹⁾, 또한 지나가는 새까지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 어른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몇 십년 동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경험을 아주 많이 쌓았다.

그는 ‘하라’ 강가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오전에 ‘보러’ 강으로 출발했다. ‘룽상’에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심심하듯 하품하며 먼 길을 걸어 가는 일은 비록 힘들지만 상쾌한 바람이 앞에서 불고, 오후 햇빛이 뒤에서 내리쬐는 것은 그에게 행복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는 소들을 채찍질하며 ‘호즈, 호즈’⁹²⁾ 하고 소리를 치고 가다가 우연히 뒤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놀라서 뒤를 보았는데 끌고 가던 소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별다른 반응 없이 뒤따라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심되어 계속 갔다. 그런데 그 소리가 갈수록 점점 더 커지며 마침내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자 ‘룽상’은 깜짝 놀라 잠시 많은 생각에 잠겼다. 《초봄에 천둥치진 않을 텐데, 설마 천지개벽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방팔방을 살펴보면

91) (명사) ‘동물’ 다람쥐과의 하나, 몸은 작고 오소리와 비슷하며, 털 빛은 붉은 갈색 또는 누런 갈색이다. 페스트균을 옮기기도 하는데 털 가족은 모피로 사용한다. 건조한 초원에 떼를 지어 살며 몽골, 중국 동부 지방에 분포한다.

92) 소, 낙타를 일어서게 하거나 움직이게 할 때 내는 소리

하늘엔 구름이 하나도 없고, 주변엔 아무 생명체도 없었다.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지자 ‘롭상’은 하늘에 새처럼 생긴 큰 것이 위로 지나 날아 가는 것을 보았다. ‘롭상’은 이 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새를 본 적이 없었고, ‘항 가리드’⁹³⁾라는 새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 대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어찌할 줄을 모른 채 한 동안 망설였다. 게다가 그 새 같은 것이 궁금해 다시 찾아 보았지만 그 새가 순식간에 산 뒤로 사라졌다. 그 순간 ‘롭상’은 잠시 꿈인지 현실인지를 망설이며 ‘화신’⁹⁴⁾일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궁금했다. ‘아무튼 올란바타르 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눌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갔다. 금방 올란바타르 시에 도착했다. 그저께 본 것을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말하려고 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마중 와서는 《우리 시에 “날아다니는 차”라는 이상한 차가 왔다》라고 하고 ‘후르후르’하는 소리를 흉내 낸다. 노인들 또한 《대단해, 이상해》라며 하느님께 빌고 있었다. ‘롭상’은 원래 신중한 사람인지라 우선 선불리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아는 관료 한 사람을 만나 이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차’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모든 사실을 듣고 매우 놀랐다. 그는 시골의 야생 상태에 빠져 시골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지식과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으므로 내년부터 일을 시키려고 했던 열두 살 된 아들만을 인민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930

93) 금시조

94) 化身: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는 일. 또는 그 불신

「하얀 달과 검은 눈물」 95)

11년⁹⁶⁾ 음력 12월 31일은 하늘이 맑고, 해가 노랗게 비치는 정말로 기분 좋은 날이었다. 뒤쪽 산 끝의 하얀 눈이 반짝이며, 산 가장자리부터 눈이 녹아 다갈색 흙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추운 겨울을 힘겹게 이겨낸 야윈 소와 양들이 꼬리를 흔들며 여기 저기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떠오른다. 또 겨울 추위가 물러서고 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온다는 것이 느껴져 기분 좋을 터인데, 목축인의 딸인 체르마는 닥당네 게르 옆에 서서 근심이 많은 표정을 보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한숨을 내쉰다.

왜냐하면 체르마의 집은 ‘고르방 사이항’이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부모님은 그녀를 도시로 보냈기 때문에 그녀는 닥당네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지 3년이 지났다. 그녀가 일을 하는 닥당의 집은 일도 많고, 그의 부인은 성격이 매섭기 때문에 체르마는 이곳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쉬어 본 적이 없고, 몸과 마음은 고생으로 가득할 뿐이다. 그 동안 닥당의 부인이 찢 살의 양과 체르마가 빠진 살의 양이 똑같다. 특히 요즘은 만두를 빚느라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다.⁹⁷⁾ 그 다음 며칠 동안 차강사르⁹⁸⁾를 맞기 위해 바느질로 새벽을 맞았다. 아침이 되면 졸리고 온몸은 지쳐서 힘들기만 하니 고향에 자기 집에 있을 때 오늘처럼 별이 좋아 산에 쌓인 눈이 녹던 그 날, 그녀는 옆에 앉아 있던 방금 태어난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과 놀던 때가 갑자기 떠올라 자기 집과 부모님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 슬퍼지는 마음을

95) ‘하얀 달과 검은 눈물’에서 ‘하얀 달’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Цагаан сар (차강사르)”인데 이것은 한국의 ‘설’에 해당하는 몽골 최고의 명절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차강’은 ‘흰색’을 ‘사르’는 ‘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하얀 달’이 된다. 작가가 뒤에 ‘검은’을 붙인 것을 보아 앞은 ‘차강사르’라는 고유명사로 번역하기보다는 ‘하얀’이 부각되도록 ‘하얀 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 ‘하얀 달과 검은 눈물’로 번역하였다.

96) 1921년을 의미한다. 몽골의 근대 초기 자료들 가운데에는 1911년을 원년으로 한 표기를 자주 볼 수 있다. 몽골은 1911년 12월 1일 독립을 선언했었다. 그리고 외몽골의 불교 수장인 자브장 담바 호탁트 8세를 황제로 추대하여 ‘보그드칸’을 수립했다.

97) ‘차강사르’에는 명절 내내 ‘보-즈’라는 만두를 먹고,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대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 백 개에서 많게는 몇 천 개까지 빚기 때문에 온가족이 며칠에 걸쳐 준비를 한다.

98) 음력설을 의미하며 몽골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이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때 닥당의 부인이 벽이 여섯 개 짜리의 크고 하얀 게르 안에서 나와 아주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체르마를 심하게 야단쳤다. “이 나쁜 것, 깔개와 양탄자 먼지를 털어 오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마당 쓰레기만 쓸면 그만이야? 내일이 정월 초하루인 걸 몰라? 이것아!”라며 빗자루로 허리를 한 번 내리치고 화를 내고 서 있으니 체르마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머리가 아파서 바람을 좀 쐬었어요. 아주머니”라며 옆에 있는 큰 양탄자를 들고 힘겹게 겨우겨우 눈 위에 먼지를 털어냈다. 이때 작년에 지은 러시아식 집의 창문으로 닥당의 딸인 마닥마가 머리에 빗질을 하면서, 화장을 한 후 새로 만든 녹색 몽골 전통복을 입는 것이 보인다. 집 안에는 흥겹게 노래하며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창문의 작은 창을 열어, 체르마를 부른다: “젊은 손님들이 오면 왼쪽 집에 들여보내”라고 명령한다. 체르마는 마다그마가 입은 비단 텔⁹⁹⁾을 보고 자기가 입은 누더기 텔을 본다. 마닥마의 거만한 태도를 자기의 불쌍한 상황과 비교해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가 양탄자의 먼지를 계속해서 털어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생각한다. ‘나의 주인들은 설날에 모두 좋은 텔을 입고, 동물 가죽으로 모자를 만들어 쓰겠구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과 술도 배부르게 먹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누더기 텔을 입고 고생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라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유를 찾아낼 수 없어 결국 그저 ‘마닥마’가 헨 텔 중 하나는 주겠지 라고 기대한다. 양탄자 청소를 다하고는, 집 앞마당 쓰레기들을 주워 담아 지고, 마당 정문에 다가갈 때, 밖에는 상가의 중국인들이 하얀 포대에 빵과 선물거리를 가지고 다닌다가 옆을 지나갈 때 그 중국인들이: “아이¹⁰⁰⁾! 눈이 멀었냐? 여기 저기 쓰레기 먼지가 많잖아! 아이!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한다. 아야¹⁰¹⁾! 체르마한테 일 시킬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고 들어오자, 마닥마가 또 부르며: “세숫물 부어”라고 한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나무를 잘라야했다. 혼자서 힘들게 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옆집에서 마부 젊은 청년 출탤이 울타리 사이로 그녀를 부른다. 출탤과 체르마 이 두사람은 남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한 대가로

99) 몽골 전통복

100) 감탄사; 당대 몽골에 오래 된 중국인들이 한탄할 때 사용하곤 했던 소리

101) 감탄사; 뭔가를 아쉬워 할 때 내는 소리

서로 가깝게 알고 지냈지만, 집 주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행복을 모르
고, 돈 없는 사람은 사랑도 못한다며 그 두 사람을 놀리고 욕하며 못만나게
했다. 마닥마는 누군가 문 옆에 다가온 것을 보았는데 창문을 통해 더 자세히
보자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빨리 나와, 그를 들어
오게 하며 같이 손을 잡고, 웃음을 지며 집 뒤를 향하던 중 체르마를 보고: " 뭐하는 것이야?"라고 큰 소리 쳤다. 그 소리를 들은 닥당의 마누라가 집 문을
세게 닫고 나오자: "너는 뭐하는 년이야, 장작이나 자르지 않고 뿔하는 것이
야?"라고 소리친다. 이때 체르마는 묘안을 짜냈다: "저 혼자서 장작을 하니
느리고 다른 일이 늦어지니 출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닥당
의 마누라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럼 너네 둘이 빨리 장작을 하지 무
엇을 하고 있어?"라고 하며 집에 들어 간다. 이 기회를 타 출탤은 닥당네 마
당에 들어 와, 체르마와 함께 장작에 톱질을 한다.

저녁 해가 질 때 썸, 낮의 좋은 날씨도 변하고, 숨 같은 눈이 뭉게 뭉게 내
리는 중 출탤과 체르마의 ‘썩썩썩’ 장작을 자르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따
뜻한 집안에 마닥마가 젊은이와 함께 샨즈¹⁰²⁾ 음악을 즐기는 것은 누가 봐도
슬픈 일이다. 그러나 둘은 추위에 떨리는 손가락을 가끔 한번씩 입에다 <아
하>라고 입 김을 불어 녹이고는 둘만의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체르마가 집주인들이 좋은 옷을 준비하는 것과 맛있는 먹을 거리를
많이 준비했다는 걸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말할 때, 출탤 또한 자신의
주인이 귀한 날에만 타는 말을 시골에서 가져왔다는 걸 말하면서 어디서 났
는지 모르겠지만 호주머니에서 멋진 머리 수건 하나를 꺼내어 줄 때, 체르마
의 마음은 마닥마의 전통복을 입은 것보다 좋았다. 체르마와 출탤은 ‘차강사
르’가 될 때 일이 많아지는 것과, 둘이 만나는 것을 집주인들이 싫어하는 내
용의 슬픈 몇 마디를 나누면서 나무를 자르는 일을 끝냈다. 벌써 해가 졌으니
이제 집안일을 해야 한다. 체르마가 출탤과 헤어져 집에 들어가니 석가모니상
앞에 천장에 닿을 정도의 버어브¹⁰³⁾를 놓여 있고 제물을 올려 놓았으며 받침
대 좌우에는 몇 가지의 먹을 것과 오오츠¹⁰⁴⁾와 고기, 만두 등을 차려 놓여

102) 중국 전통 악기

103) 몽골 전통 과자. 밀가루로 만들어 기름에 튀겨 만든다.

104) 통째로 삶은 양고기

있다. 이것들은 전부 체르마가 만든 것들이었다. 집주인들은 새 옷을 입고 “배불리 먹자”며 먹고 즐긴다. 하지만 ‘체르마’는 부엌일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체르마에게 마담마가 입던 흰 전통복 하나를 갖다주자, 체르마는 내일 입을 게요 하면서 뒤에다 두고 출탤의 준 머리 수건을 꺼내어, 가끔 한번씩 얼굴을 닦는 것을 닥당의 마누라가 보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선물 중에서 하나 훔쳤지” 라고 혼을 낸다. 이때 체르마는 훔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출탤이 주었다고 사실을 말하면 또 혼이 날까봐 입을 다문 채로 앉아 있다. 이제 어찌지 하며 머릿속은 걱정스럽다. 그날 저녁은 집주인들이 예식을 치를 것이고 밖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는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게르를 무너뜨릴 정도로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고, 오직 체르마만이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체르마는 다시 다음날 먹을거리를 준비하면서 밤을 새웠다. 주인 부부가 나갈 때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했고 밖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는 끝나지 않고 술과 향락이 계속되다 보니 한쪽에서는 마신 술을 게워낸 뒷처리를 해야 하고, 또 한쪽에는 잠자리도 마련해주어야 하기에 또 다시 밤을 새웠다. 이런 식으로 며칠을 보낸 후 체르마는 무척이나 지쳤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 가져 줄리 없었고, 또 많은 일들을 피할 길도 없으니 그저 홀로 슬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저 가끔 울타리 틈으로 ‘출탤’과 이야기하며 마음을 달랠 뿐이다. 가끔 한번씩 울타리 사이로 출탤과 몇마디 나누며 마음을 가라 앉힌다.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또 차강사르 명절이 다가올 때 무슨 이유인지 닥당의 집은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사 준비를 하였다. 닥당의 마누라가 체르마도 시골에 같이 데리고 간다는 데 어느 날 출탤이 와서: “지금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돼.”라고 말했다. 체르마는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다가 곧장 집으로 와서 자신의 짐들을 챙겨 출탤의 집에 찾아갔다. 닥당의 마누라는 화를 내며 몇 번 욕을 하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출탤의 집이 아무리 때가 끼고 구멍이 났다한들, 닥당의 크고 하얀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몇 배는 행복하며 자기가 원할 때에 일어나서 할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출탤과 같이 산지 1년이 지나 ‘차강사르’의 첫날이 되어 처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체르마는 도시에 온 이후 지금까지 ‘차강사르’ 그믐날 저녁에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 일은 처음이었다.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 비단이나 털가죽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찢어지지 않은 옷을 입을 것이다.

1932년



「보이지 않았던 것」

항가이의 아름다운 산맥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강 이데르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흐르는 잠깐잠깐 중에 음악 같은 소리를 낸다. 강가에 앉아서 들으면 참 아름답다. 인간이 살아갈 길이 어떠한지를 미리 알려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맑은 강물이 몇 천 년을 걸쳐 그대로 흘러왔는데, 주변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의 역사가 자꾸 변해온 것은 삶을 위한 투쟁 또는 인과응보의 결과일 것이다. 강 주변을 꽤 높은 산맥들이 둘러싸고 있고, 커다란 바위들은 위엄이 있게 서 있고, 울창한 숲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주 아름답다.

높은 바위에서 폭포가 내려 이데르 강으로 흘러들었으며, 흐르는 그 강물을 마시니 마음이 풀린 듯하다. 봄 꽃이 피는 시기인 여름 초에 도르노드 산맥 위를 아침의 햇빛이 비추자, 숲 속의 새들 울음 소리가 들리며, 말을 지키고 밤을 샌 마부가 그 소리를 듣고 즐긴다. 아침 해가 뜨자 온 들판이 밝아지고, 맑은 공기가 올라오고 여름 향이 나며, 풀 끝에 내린 이슬과 대기에 낀 안개는 유목민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러한 아름다운 아침에 이데르강 앞, 독특한 작은 언덕 위에 깔끔한 하얀 게르들이 보이며, 그 게르들 굴뚝에서 파란 연기가 나오고, 가축들은 집 옆으로 널려 있다.

우리에서 4에서 5백마리의 양떼가 나와 빠른 속도로 서쪽을 향해 간다. 그런데 한 남자 아이가 게르 서쪽 앞에 묶여 있던 수말을 타고 양떼를 쫓아 가서 이리 저리 큰 소리 치기 시작했다.

그 청년을 알고 보니 나이가 23살 정도 된 활기를 띤 청년이었다. 그는 파란 목면 텔¹⁰⁵⁾에다가 연한 초록색 허리띠를 둘러 입었고, 짧은 머리 위에 러시아 양털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있었다. 작고 검은색 수말은 사나웠기 때문에 가만히 서지 못하고 자꾸 움직인다. 볼드 청년이 말을 철썩 채찍질하며, 고삐를 흔들고 때를 따라 간다.

그가 서쪽에 있는 작은 둔덕 위에 올라 바라보자 양들은 그 자리에 머물면

105) 몽골의 전통 의상

서, 방금 나온 풀을 정신 없이 뜯어 먹느라 땅에서 코를 빼지 못한다. 볼드는 둔덕 남쪽에 가서 말에서 내려 검은 수말이 멀리 가지 않도록 다리를 느슨히 묶어 놓고, 본인은 바위 위로 올라 가서 주변 경치를 보고 앉는다.

높은 하늘을 보면 사방 전체가 밝고,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네 종류의 가축들¹⁰⁶⁾은 여기 저기 방목되어 가장 자양분이 많은 풀과, 가장 맑은 물을 따라 간다.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여름이 오면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기분이 되살아난다. 마찬가지로 볼드도 기분이 되살아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면서 남쪽을 자꾸 본다.

왜냐하면, 볼드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올란바타르를 통해 고향에 왔으나, 얼마 후에 올란바타르로 다시 돌아가서 취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날,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발가르마를 만나고 앞날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드는 경치를 보며 사랑하는 발가르마를 데리고 올란바타르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기분에 초조히 기다리는 중, 남쪽에서 말을 탄 사람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말을 탄 사람은 확실히 발가르마였다. 볼드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말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 쪽에서 총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 보니 말을 탄 남자 세 사람이 있었다.

볼드는 "도둑놈들인가? 아니면 사냥꾼들인가?"라고 놀라며, 아무래도 말을 타야겠다고 생각하며 말이 있는 쪽을 향해 가는 중, 그 3명이 이미 다가와서 "그 자리에 서! 손들어!"라고 동시에 불친절하게 소리쳤다. 볼드는 깜짝 놀랐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왜 총을 쏘는 거요?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물으며 그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니, 한 사람의 얼굴은 중년을 지난 모양이었으며 노란 비단으로 만든 승려 복을 입고 있었다. 여자들이 쓰는 무늬가 들어간 조끼를 입은 모습이 연극에 나오는 사람 같고, 목에는 얼룩덜룩한 상장(喪章) 하닥¹⁰⁷⁾을 맨 모습을 보면 떠돌아다니는 유랑자 같고, 내려다보는 모습은 굵은 늑대 같으며, 한쪽에는 붉

106) 일반적으로 몽골에서는 말, 소, 양, 염소를 제 종류의 가축이라 일컫는다.

107) 존경스러운 사람을 맞이하거나 선물, 편지를 줄 때 그리고 종교의식에서 사용하는 푸른 색 등의 실크 천

은 칼집에 들어있는 구부러진 검을 차고, 다른 한 쪽에는 총을 멘 모습이 결코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엉성하게 짠 푸른 견직물로 만든 텔을 입은 사내로 윗부분이 둥글게 부푼 것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붉은 진스¹⁰⁸⁾가 달린 것을 보니 분명히 옛 관리임이 분명했다. 소총 한 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옷 가슴에는 티베트 글자가 쓰인 하얀 천이 달려있는 것을 보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젊고, 머리를 하얀 수건으로 돌려 묶고 있었다. 땀은 머리를 남겨 둔지 얼마 안된 것과, 노리쇠 총을 메고, 큰 채찍을 들은 것을 보니 확실히 산적임이 분명했다. 이 세 사람의 말들은 땀이 꽤 많이 흐른 상태였다. 볼드를 모두 노려보며, 스님 같은 한 사람이 “지금 네가 우리를 심문하는 거냐? 우리가 너를 심문할 거다. 이름이 뭐야? 집은 어디고?”라며 호통을 친다. 진스를 단 다른 사람이 “그 모자를 벗어봐! 네 머리를 보자. 단발머리야? 어느 조직에서 속했나? 어서 말해!”라며 달려든다. 세 번째 사람은; “넌 여태까지 머리를 왜 기르지 않은 거야? 우리한테 말과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뭐 해?”라고 고함을 친다.

이 때 볼드가 놀라 노려보며 “당신들이 입고 착용한 것들을 보니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것들이구려.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미친 짐승 같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웬 사람들이오?”라고 하자 그 세 사람은 즉시 총을 들고 “쏘겠다, 묶어라, 죽여야겠다.”라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힘을 모아 즉시 볼드를 고삐의 끈으로 단단히 묶자 불쌍한 젊은이의 얼굴은 퍼렇게 되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이를 악물고 견디며 기다린다. 그 때 그 셋은 “너의 말들은 어디 있나? 게르는 어디 있어? 근처에 조합이 있는가?”라고 고함치고 또 끈을 더 조이며 심문했지만 볼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고 젊은이의 패기 지녔기 때문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셋은 볼드를 ‘내무부¹⁰⁹⁾에 압송한다’ 라며 말에 태우고, 식량을 삼기 위해 양 떼에서 양 두 마리를 잡아 놓았다. 그들이 서쪽을 향해 출발할 때 쫓 발가르마가 길을 막고 볼드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볼드는 아무 말도 못 한 채 그녀를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다.

셋은 볼드에게 물어봤던 질문들을 그녀에게 반복하는데 그녀는 두려움에:

108) 귀족의 모자에 달린 장식으로 이것이 달린 모자를 쓰면 ‘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9) 반혁명 정부인 어치르바트 내무부를 의미한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말 밖에 다른 답을 하지 못 한다. 이 때 셋은 한 동안 그녀를 겁주며 야단치다가 화가 풀려 낮은 목소리로 “우리랑 같이 가, 거기 가서 우리 장군의 왕비가 되면 되지”라며 그녀를 설득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의 고삐를 잘 잡고 멀리 서 있을 뿐이다. 이 때 볼드가 발가르마에게 눈으로 몰래 신호하자 발가르마가 당장 그 상황을 알아차려 말을 채찍질하고 도망쳤다. 승려들이 발가르마를 뒤 쫓아 갔지만 그녀가 타고 있는 말은 방금 전에 잡아 탄 말이기 때문에 발가르마는 날아가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후가 되자,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 비가 올 것 같이 찬바람이 살살 분다. 볼드는 그 세 명 가운데에 끌려 가는데 그를 묶은 말 가죽이 살을 찢 조여 고통을 느낀다. 어디로 데려 가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가끔씩 그들을 노려보면서 갔다.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장군, 저 장군, 이런 화신(化身), 저런 백다라 보살(白多羅菩薩)¹¹⁰⁾이라고 말하며, 또한 이렇게 죽이면 재미있다, 저렇게 죽이면 좋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해가 질 때에 산 하나를 넘어가고, 금방 그들의 기지에 도착하였다.

작은 사원의 금빛 조형물은 지는 햇빛에 아름답게 반짝이며, 신도들의 마음 깊이 비추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고문해 죽이는 야만한 자가 나온다는 것을 어찌 알겠소?

그 사원 대문 앞에 게르 몇 채가 있으며, 그 게르들 문에 불교에서 운을 의미하는 깃발들이 달려 있고, 게르들 사이에 남녀 승려와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저기 몇 명씩 조직적으로 모여 선다. 왼쪽 게르 옆으로 지나 가면 수갑과 쇠사슬 소리가 울리며, 사람들이 고통을 못 참아 지르는 소리와, 샤하이¹¹¹⁾로 인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린다. 볼드는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며 이런 일은 꿈, 아니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세 사람이 맨 오른쪽 게르 옆에 도착하자, 세네 사람이 마중 나와 타고 있던 말들을 데려 갔다. 세 사람은 볼드를 말에서 내리게 한 다음 꽤 떨어져 있는, 늙고 젊은 10여명이 갇혀 있는 곳에 가서 끌려 갔

110) 여성을 통한 최고도의 영적 변모로서 ‘인간을 이끌어 속박의 어둠에서 해탈하는 여성’, ‘모든 부처의 어머니’를 뜻한다.

111) 청나라에서 온 몽골의 고문 방식.

다. 거기서 그들은 볼드의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볼드는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처음 보지만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말을 못하며, 한, 두 명만 약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들은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나, 죽을 때까지 고문을 덜 받았으면... 하고 했다. 볼드는 그 말을 듣고 놀라, 더 자세히 물으니, 마흔 살 정도 된 한 남자가 이 곳은 어치르바트의 부라는 곳이라고 말해줬다. 알고 보니, 이곳이 어치르바트 지옥이라는 불리는 그 곳이라고 한다. 아들은 올란바타르 국군이라서 자신이 잡혀 와서 조사 받게 되었고 붙잡힌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승려들이며, 죽이는 것 외에 모르는 이런 야만적인 놈들을 처음 본다. 어떤 스물일곱 살 정도 된 청년에게 이들의 장군이 우리 측 병사가 되어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청년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의 힘줄을 끊어 죽였다고 한다. 왼쪽 뺨에 생긴 상처를 물으니, 어제 80번이나 사하이에 당했다고 답해서 볼드는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다. 볼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쪽 사람들의 야만한 성격을 놀라며 혐오하게 되었다. 그 순간 오른쪽 게르 내에서 그 세 명의 야만인과 또 다른 세네 명이 같이 나왔다. 눈을 희번덕이고, 이를 드러내고, 그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나는 이놈을 이렇게 죽일 거야. 너는 저놈을 저렇게 죽여!"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야만한 짐승 같다. 그런데, 초록색 의상을 입고, 하다그¹¹²⁾를 들고 있던 한 여자가 그들 중에 출썩거리며 다닌다.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니, 그 여자를 여신이라고 불렀다. 양쪽 다리를 벌렁거리고 볼드 옆에 다가와서 "난 내일 이놈을 죽여 버릴 거야"라고 총으로 찌르고 말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간 볼드가 저녁에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잡혀 올 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저녁이 되어도 양떼도 볼드도 오지 않아 볼드의 가족들은 걱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혹시 타고 있던 말이 달아났나? 무슨 일이 있나?하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가 지는 무렵에 발가르마가 달려 와 볼드

112) 하다그: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거나,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색깔의 실크 천이다.

가 돌아왔는지를 묻자, 집안 사람들은 놀라며 볼드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 다라고 답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발가르마한테 듣고 볼드의 아버 지와 누나가 급하게 말에 안장을 올려 놓고 찾으러 갔다. 볼드를 잡아 간 사 람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웃집 경거르 왕족도 앉아서 같이 듣고 있었다.

경거르는 옛날 영주이었기 때문에 지난 겨울과 봄에 타리아트 후레에 몇 번 갈일이 있었는데 그가 갔을 때에 많은 승려들을 만나, 폭동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많이 겁을 먹어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던 상태였다. 그는 볼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머리 속에 불빛이 들어오는 듯 기뻐하고, 벌떡 일어나 볼드에 대해 소식을 알아 오겠다고 나가, 오래 된 노란 의상을 입고, 몰래 진스를 앞 주머니에 넣고 급하게 후레를 향해 달려 갔다.

경거르가 가는 길은 이미 어둡고, 희미한 별빛이 길을 비추는데, 경거르는 다시 옛날처럼 된다면, 나는 윗사람한테 아부를 떨고, 아랫사람을 지배하겠다고 생각하며, 이웃집 볼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드가 죽으면 그 집 노인과 여자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다. 한편, 볼드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 "개를 잡아!"라는 소리가 들려, 볼드 어머니가 나가자 발당이란 사람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땀을 많이 흘리고 숨차하고 있었다.

발당이 "안녕하셨어요?"라고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차 한잔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북쪽에 있는 가게들을 반란군이 와서 강탈하고 불에 태워 버렸다. 관리했던 한 사람이 잡혀갔다. 나는 겨우 도망갔다. 그들은 잡혀간 사람들은 반드시 죽인다. 죽을 만큼 엄하게 고문한다. 서북쪽 지역에서 이미 며칠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이 말들을 하자 남녀노소 모두 놀라고, 볼드 어머니가 "내 새끼!"라고 소리를 치고 기절하였다. 발가르마가 난로 옆에 울며 역정이다. 볼드 아버지가 어떻게 구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당하고 상의를 하는데, 아들을 생각할 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

집안이 우는 소리를 내며 소동하고 불안해하니 발당이 말하기에 “울고 불안해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시에서 인민군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 말을 하여 안내를 한다면 어찌면 구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말은 피곤하여 지쳤고 눈도 나빠요. 당신들은 모두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나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 밖에 없는 겁니까? 당신의 이웃 ‘경거르’는 어디에 있나요?”라고 하며 볼드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로 옆에 울고 있던 발가르마가 “제가 갈게요!”라고 하여, 어른들이 말리려 했지만 발가르마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죠?”라며 막 바로 말을 받아치고는 나가버렸다. 발가르마가 집에서 나갈 때 썸 날이 어두워졌는데 안개 속에서 그녀가 타고 달리는 회색 말의 두 귀만 흔들려 보인다. 발가르마가 멈추지 않고 서남쪽으로 계속 달린다. 밤의 찬 바람이 어두움 속에서 불어 올 때 그녀의 속은 싸늘해지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발가르마의 머리 속에는 사랑하는 볼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진다. 혹시 다시 만날 인연이 없을까 봐 두렵다.

높은 언덕을 올라 타 숲 깊 속으로 달려 들어가곤 울퉁불퉁한 길이 계속되며 여기 저기서 탕 소리가 자꾸 난다. 이 소리에 말이 놀라 자꾸 멈추기 때문에 발가르마가 길을 잃어 어찌할 줄을 모른 채 너무나 당황하는데 그녀는 사랑하는 볼드에게 도움을 주지 못 하고 늑대에게 잡혀 죽을까 걱정한다. 이 때 갑자기 숲 속에서 탕하고 총소리가 나며 총알이 머리 위를 휩 지나갔다. 말이 놀라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데 옆에서 두 군인이 다가와서 총을 장전하고 누구냐?라고 물어 보는데 발가르마는 그 군인들이 인민군인 것을 알아차렸다. 발가르마는 기뻐하는 동시에 인민군의 위엄을 보고 겁을 먹었다. 발가르마가 보초병에게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하자 군인들이 전쟁 규칙대로 그녀를 붙잡아 부대에 데리고 갔다.

그 밤에 발가르마는 조사를 받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튿날 아침에 인민군인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하지만 발가르마는 볼드가 살아 있을지, 아니면 죽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 숨도 쉬지를 못 한다. 발가르마가 군인들에게 갈 길과 지역의 상황을 일일이 가리쳐주며 전쟁터로 가길 서두른다.

미래를 어떻게 추측해 말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 묶여 있는 열 몇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괴롭지만 인생의 마지

막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다만 사랑하는 부모, 홀로 남은 아내, 그리고 고아가 될 자식들만 걱정하며 한 숨을 쉰다. 하지만 맑은 하늘에 해는 뜨며 그들 위에서 따뜻하게 비친다.

장군들은 마음껏 자다가 잠자리에서 굶은 늑대 같이 일어나서 순서도 없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 한 곳에 두세 명이 모여 양을 잡아 먹듯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 그 사람의 가슴을 찔러 가르다. 그 때 칼날에 연골의 와삭와삭하는 소리가 나는데, 온몸을 떨 때 심장을 뽑자 그 사람은 큰 소리내고 죽었다.

이러한 무서운 일을 저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다만 다음은 누구의 차례일까?해서 눈을 감아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그 장군들은 미친 짐승처럼 떠돌다가 다음 사람을 고른다. 그 때 볼드가 이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바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네 멋대로 될 것이냐?하고 다른 사람을 골라 데리고 갔다. 그 사람의 눈은 휘둥그래지고 온 몸은 떨며 나를 바로 총으로 쏘아 죽여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괴롭혀 죽인다고 하며 두세 명이 그를 잡아 그의 피부를 칼로 도려내고 가르며 힘줄을 하나 하나씩 뽑는다. 그 다음에 죽기 직전인 상태로 남겨 둔채 서너 시간 동안 그가 비명 지르게 하자 그들의 마음은 인제 흡족하다는 듯이 그날의 즐거움을 끝냈다.

아이고, 다른 곳에서 보지 못 할 지옥 같은 곳은 여기 있구나! ‘일체의 모든 생명을 다 살리고 이롭게 한다’¹¹³⁾ 라고 설교하는 승려들에게서 그러한 혐오스런 일을 본다. 묶여 있는 몇 명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낮에 봤던 것들이 밤에 다시 눈 앞에 떠오르자 그들은 괴로워 하며 어두운 밤을 보낸다. 새벽 찬 바람 속에 시달렸지만 날이 샐 때 즈음 그들은 졸음이 오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113)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보시-나누는 삶,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배꿀 수 없다. 즉 나라는 놈을 제거하고 탐욕을 없애는 실천, 지계- ‘하지마라’는 소극적 계율이 아니라 ‘-하라’는 적극적 계율, 대승불교에서는 십선계를 강조, 인욕- ‘참아라’ 그러나 억지로 참으면 마음의 병이 된다. 그 이치를 바르게 알고 마음을 비우는 것, 정진- 수행의 동력이며, 삶의 활력이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나아갈 수 있다. 악을 줄이고 선을 행하라, 선정- 조용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조용히 하는 것’이다 번뇌망상을 내려놓자, 지혜- 실상을 여실히 보는 것이다.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 본래의 광명을 찾아라

그 때 즈음 갑자기 대포로 사격하는 큰 소리가 몇 번이나 산들 사이에서 울렸다.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들의 눈빛은 되살아나며 용기가 났다. 묶여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우리 차례가 제대로 왔군! 짐승같은 승리 놈들을 당장 죽여야 하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장군은 일어나 당황해하며 뛰어나갔다.

그리고 병사들을 준비시켰다. 노인들, 승리들, 마녀 같은 여자들이 모여 남루해서 너털너털해진 망가진 총과 칼, 대나무 활, 총알, 막대기까지 들고 다라니경을 외우며 한 줌의 흙을 주머니에 넣으며¹¹⁴⁾ 갑옷을 입은 것처럼 강력한 인민군대를 무찌르자며, 군인 몇 백 을 얼마 없는 총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공중에 비행기가 날아 왔다. 반란군은 두렵고 당황하여 흩어진다. 장갑차가 왔다. 그들은 모였다 흩어졌다하며 여기저기에서 죽는다. 순식간에 다른 세계가 되었다. 북쪽 작은 언덕 위에 붉은 깃발이 내달린 것을 보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나와 인민군 만세라며 크게 외칠 때 반란군들은 혼이 빠져나갔으며 인민의 영광은 고양된다.

발가르마는 군인들과 함께 달려 와 매우 기뻐지만 아직은 볼드가 살아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돼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발가르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서 찾아보아 결국 묶여 있는 사람들 옆에 왔다. 결국 발가르마는 볼드가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 그를 안았다.

군인들이 그들의 묶인 죄사슬을 풀어주고 보살펴줄 때 발가르마는 볼드의 끈을 풀어주고 돌보아준다. 하루 동안의 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붉은 군대는 전쟁을 통해 많은 반란군을 죽였다. 볼드와 발가르마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흩어진 양들을 모아 기쁘게 이야기를 하며 돌아왔다.

그러던 중에도 이데로 강은 여전히 흘러간다.

1933

114)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머니에 흙을 넣고 가면 승리한다는 당시 불교의 왜곡된 미신

ABSTRACT

Study on the Progressive Composition of Author D.Natsagdorj
from the Mongolian Transitional Literature Period: Through
the comparison of In-jik from Sinsoseol(New fiction)

Shagdarsuren Kherlenbayar

Major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research entails the work of D.Natsagdorj, who is one of the main representatives of Mongolian writers during the Mongolian transitional period. Moreover, this research looks deeper into the life of D.Natsagdorj and his progressive literature and analyses them in detail.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work of D. Natsagdorj with the work of Lee In Jik, who is also a Korean progressive writer (new fiction). Even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has had a good diplomatic relationship of over 20, their relationship in terms of literature is in its primary stage. D. Natsagdorj was one of the few writers to help the development of Mongolian contemporary literature.

Therefore, I am certain that introducing the work of D. Natsagdorj in my research will help deepen th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literature as well as culture. First of all,

the life and literature work of D. Natsagdorj is detailed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thesis research. To introduce the chapter briefly, when D. Natsagdorj was only 15 years old, he had witnessed and experienced the people's revolution of Mongolia, in 1921, he started off his career as a secretary for the government office. Moreover, from 1925 until 1929, D. Natsagdorj studied abroad in the Soviet Union as well as Germany. Therefore, by experiencing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 and studying abroad to learn about the western culture helped D. Natsagdorj get ideas for his work and incorporate his experiences in his literature. This was also a transition period from a rather barbaric society to a more sophisticated society, and living in this period and experiencing different cultures and societies helped D. Natsagdorj reflect different points of views in his composition. D. Natsagdorj's work has a close tie with the new innovations and findings of his time. One of the biggest examples of this is the story of "Culture Shock" which was written at the time when the first air transportation was introduced to Mongolia. Also the story of "It was not seen" which was written at the time when Buddhist monks rebelled against the people's revolutionary movement. Another example of one of D. Natsagdorj's work is "Tears of a Monk" which reflects the true life of Buddhist monks during the time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Finally, the story of "White Moon and Black Tears" reflects the true nature of the upper class citizens and the poor citizens at the time. In the third chapter of this thesis, a deeper analysis in detail as well as D. Natsagdorj's intentions of his famous works "Culture Shock," "White Moon and Black Tears," "It was not seen," and "Tears of a Monk" is written. To analyze D. Natsagdorj's work in brief; his main intentions are to help bring sophistication and culture to the people of Mongolia and his work mainly focuses on comparisons and action related writings. In the fourth chapter of this thesis, the analysis of progressive literature

and a new category in literature: new fiction is reflected by comparing the life and work of D. Natsagdorj with contemporary literature writer In-Jik. Although the period of time in which these two writers lived is different, the works of these two writers are similar in ways that these two write about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of their times. Therefore D. Natsagdorj's "Culture Shock" and "It was Not Seen" is compared to In-Jik's "hyorenu(혈의 누)" and "Eunsegye(은세계)"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work of these two writers and compares their work and finds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reflection of societies of their times and the way they criticize their societies and politics. In conclusion, this thesis analyses the work of D. Natsagdorj who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riters in contemporary Mongolian literature as well as comparing it to the work of In-Jik, who is a famous Korean contemporary writer. My hopes are that this work will further the relationship of Mongolian and Korean literature and help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of literature in these two countries.

Keywords: D.Natsagdorj, In-Jik, comparative literature, enlightenment, philosophy of enlightenment, politiccity, Sinsoseol(New fiction), Mongolian short story